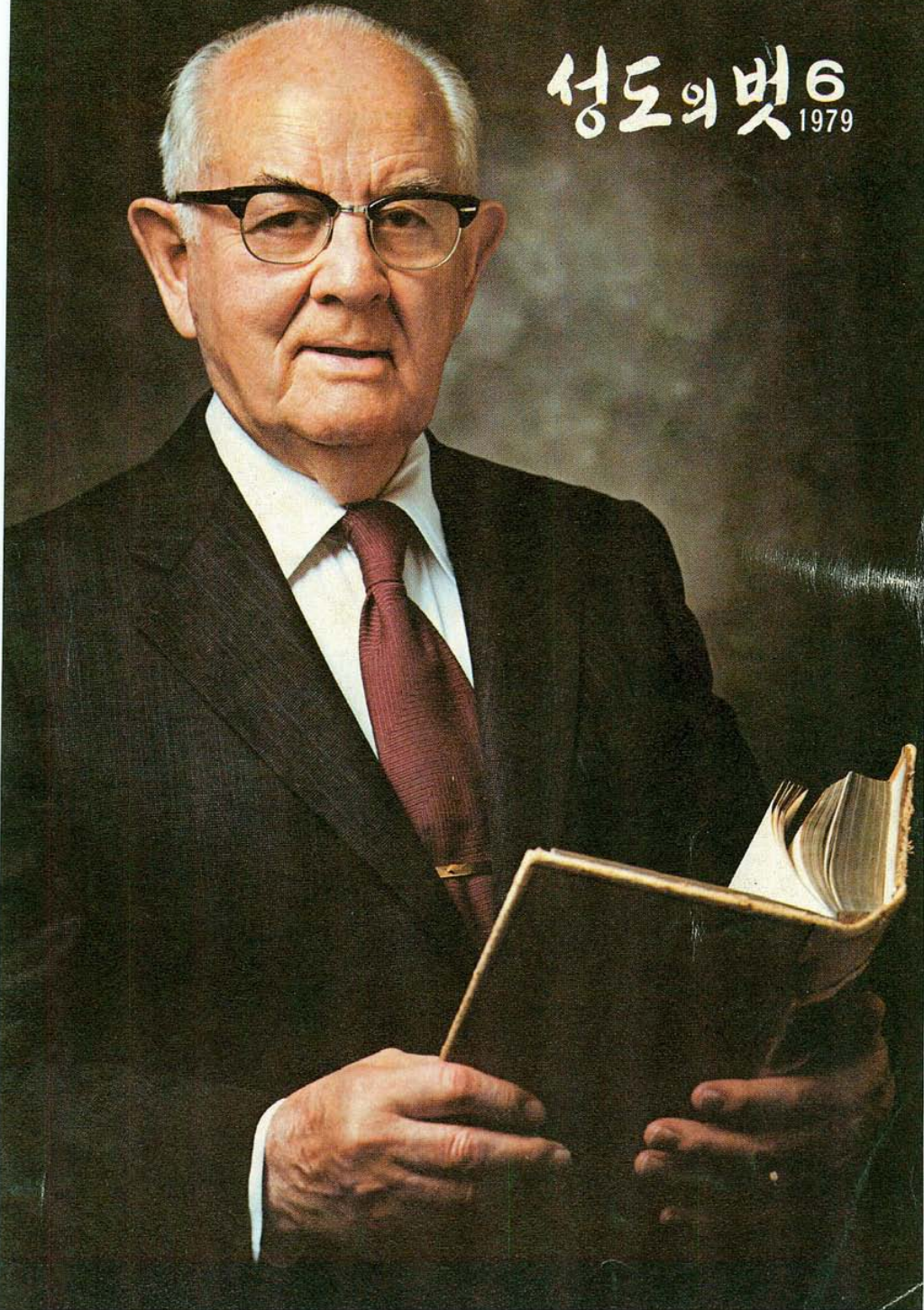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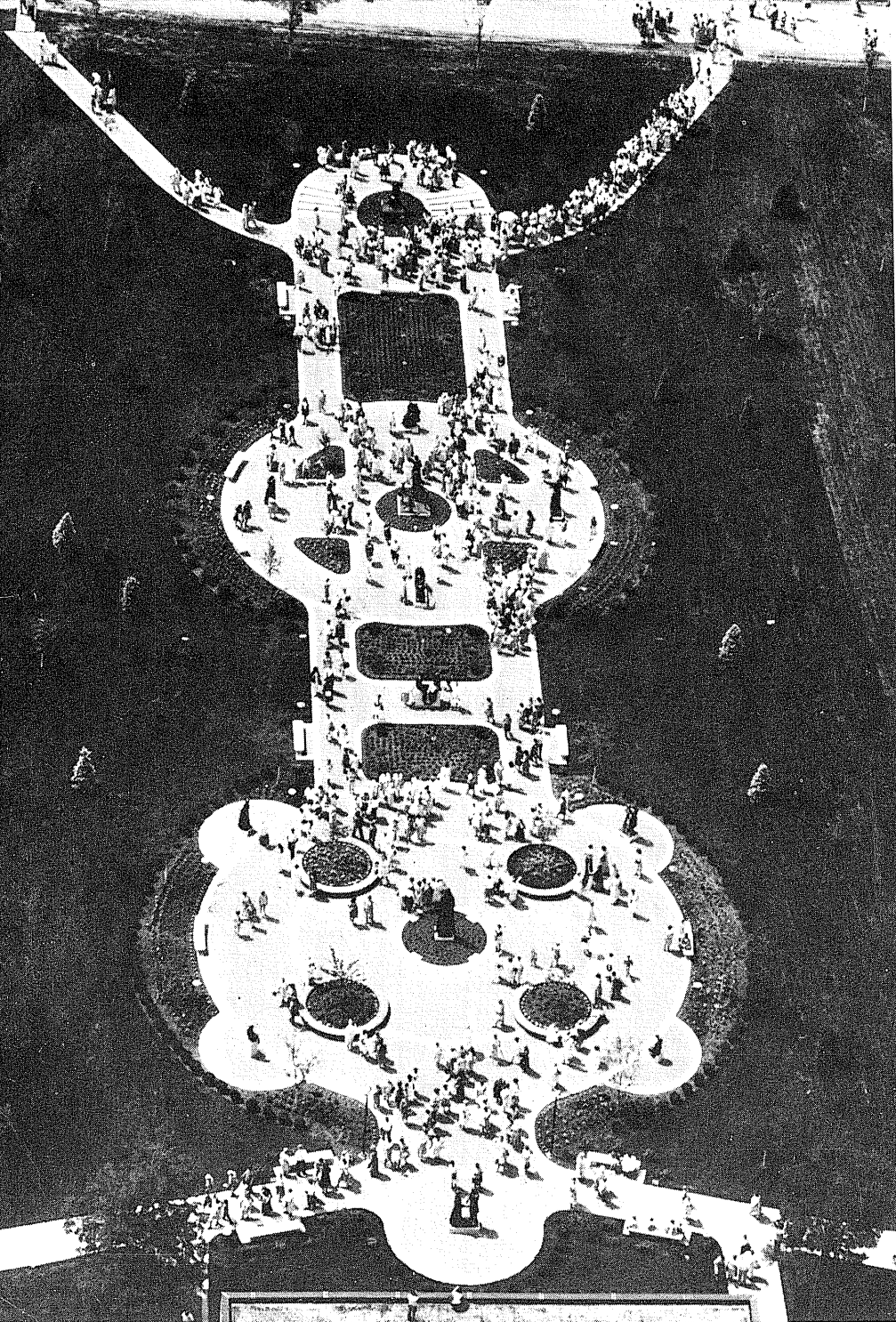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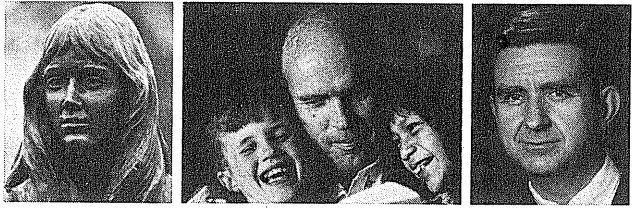


성도의 벗 6
1979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볼
앤 엘튼 태니
매리온 지 롬니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리그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헨터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로스 알 맥콩키
엘 톨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교문

엠 러셀 벨라드 이세
렉스 디 피네가
휴 더블류 피녹크

성도의 빛의 1년 정기 구독료는 1,8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2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4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빛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빛 1979

차 례

풍성한 삶.....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2

태초부터 우리의 귀감이 되는
 자매들..... 브로스 알 맥콩키 장로..... 6

여성과 경전..... 매리언 시 샤프.....14

가장은 어떻게 가족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는가.....닐 제이 플린더즈.....18

우리 가정의 재산을 관리함.....존 플린더즈.....23

나의 아내에 관해 어떻게
 많은 것을 알았는가.....토마스 더블류 라단이.....25

질 의 응답.....28

내친구.....29

친구가 친구에게.....매리온 디 헨스 장로.....30

불붙은 신전.....수전 에이 매드슨.....32

씨뿌리는 자의 비유.....나오미 더블류 랜들.....34

심심풀이.....36

사랑 그 자체가 보상이.....레이드 로버츠.....39

허구적인 이야기가 실현되다.....마거렛 쿠블러.....46

종교, 반항, 레벡카.....이 디 텔포드.....48

하나님의 면전에서.....조셉 에프 스미스.....55

지역 지도자 메시지.....한 인상 장로.....61

지역 소식.....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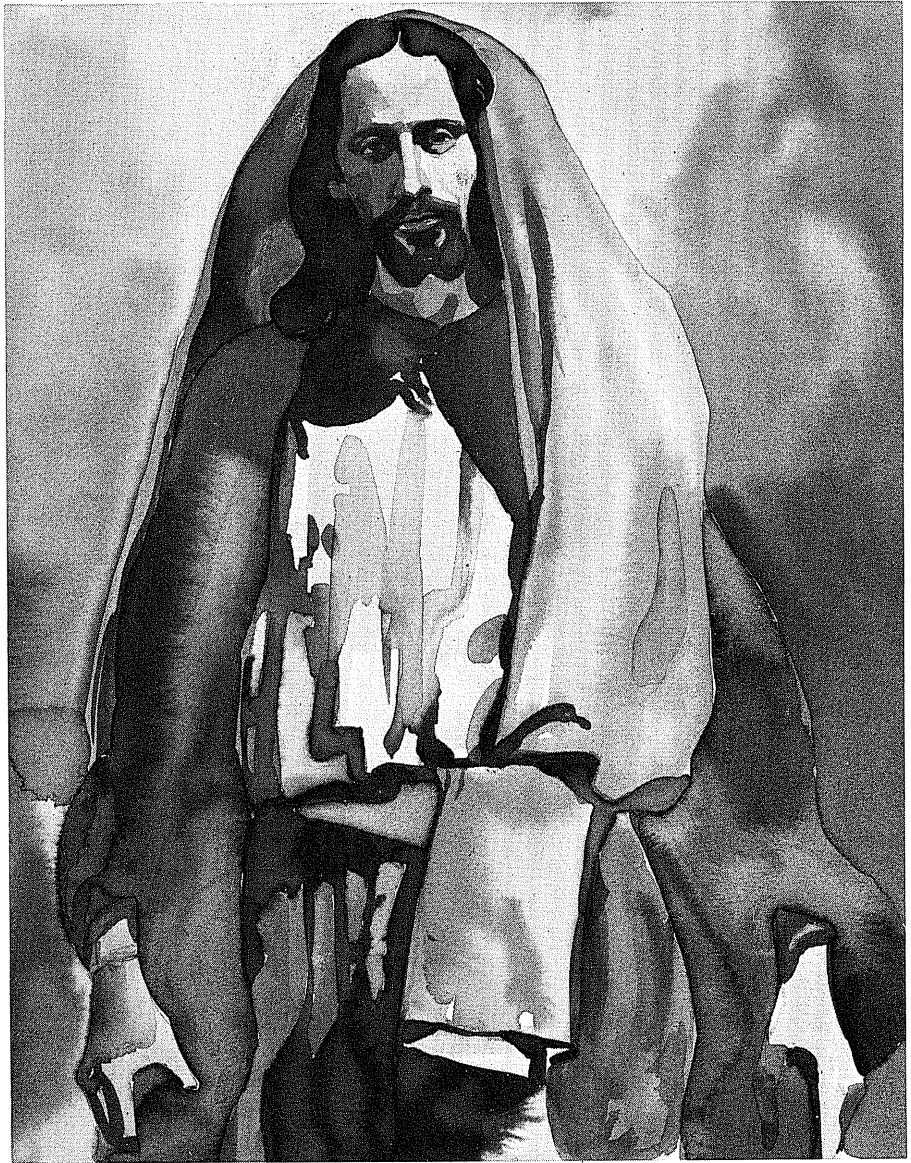
통 권 : 제167호, 제15권 제6호
등 록 :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79년 6월 1일(월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 : 유진 피 털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7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과 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1979년
제15권 제6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주

대관장단 메시지

풍성한 삶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나 사렛 예수는 그의 가르침에서 다
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
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요한
복음 10:10)

연속적인 삶에 관해 말하지 않고서는
풍성한 삶에 관해 말할 수 없습니다. 우
리가 지상 생활이라고 부르는 좁은 영
역인 이생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기간안에 우리 모두에게 완전한 공
의나 완전한 건강이나 완전한 기회를 주
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다른 상태와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생활한 자는 모
든 다른 상태와 축복이 완전해짐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최후에는 완전한
공의를 받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의 가르침이. 지상 생활 곧
작은 단편에 지나지 않는 이 기간에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는 방법에 유의하는 것은 바람
직한 일입니다.

첫째,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는 우리
가 보다 좋은 세상에서 살기 위해 준비
하고 있는 동안 이생에 깊이와 즐거움을
더해 줍니다. 봉사함으로써 우리는 봉사
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있을 때 우리의 행위가
이웃에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보다 새로운 견지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때 우리 자신에 대해 관
심을 기울일 시간은 더 적습니다. 봉사
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잃어버림으로
써 우리가 자신을 찾으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미치는 하나님님의
인도를 인정하는 견지에서 우리 자신을
“찾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합당한 방법

으로 우리의 이웃을 위해 봉사할수록 우
리를 위해 더욱 많은 물질이 있게 됩니
다. 사실상 우리 자신을 “찾는 것”이 더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에게
는 찾을 것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지 맥도널드는 “사랑을 받음으로써
가 아니라 사랑함으로써 인간은 다른 사
람의 영혼에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
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 완전한 삶과 강한 목적 의식을 갖기
원하면, 주어야 합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우
리가 올바른 인생관을 갖고 우리의 상
황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갖는 데 도움
이 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시며 우
리를 지켜 보십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주십니다. 그
러므로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풍성한 삶은 우리가 자신의 생활관을 넓
히고, 자신의 잠재 능력을 발전시킬 때
성취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가르
침에 따를수록 우리의 견해는 더욱 크게
넓혀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봉사할 수 있는 잠재 능
력이 있음에도 이러한 능력이 이와 같
이 넓혀지거나 발전되지 않은 채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영성은 큰 안전감을 갖
게 해줍니다. 우리는 봉사하지 않고서
영성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아 이웃을 돕기
위해 자신의 재물을 쓰고 있는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지만 풍성한 삶은 물질
을 획득하는 것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경전에
언급되어 있는 풍성한 삶이란 다른 사람

을 위한 우리의 봉사를 증가시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을 위해 봉사하는데 우리의 재능을 활용함으로써 이르게 되는 영적인 절정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웃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면 우리의 삶에는 커다란 공허만이 있게 됩니다. 그 예로써 수많은 사람의 생활 양식이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가족과 친구와 동료를 버려두고 무분별하게 쾌락이나 물질을 추구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가를 알고 나는 두려운 마음을 금하지 못합니다. 참된 기쁨과 단순한 쾌락과의 차이점의 하나는 몇 가지 쾌락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그 대가로 치름으로써만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기쁨은 비이기심과 봉사를 통해 생기며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기 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어떤 관찰자는 심각한 문제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와 같은 하찮은 일에 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까 하고 의아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점의 하나는 진실로 중요한 일을 알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자신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 생각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자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풍성한 삶은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되어 다른 사람에게도 옮겨옵니다. 우리 안에 풍성함과 의로움이 있다면 어떤 중요한 사람이 우리 각자의 삶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부유해진 것보다 더 부유해지도록 해준 것

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2,3명을 선정하고 자신의 생애 동안에 위급한 중요한 때에 여러분에게 가장 크게 도움이 된 그들이 행한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물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들이 진실로 여러분을 돌보아 주었고 여러분을 위해 시간을 내어 주었으며 여러분이 알아 둘 필요가 있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쉽게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보다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에 관해 말씀한 예수님이 삶에 풍성함을 더해 주는 그의 복음의 몇 가지 기본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인간의 고난인 전쟁, 질병, 가난의 원인은 많습시다. 그러나 인간의 고난, 다시 말해서 가장 심한 고통을 낳게 하는 고난의 가장 영속적인 원인은 바로 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결혼 전에 완전히 순결하게 생활하지 않고 결혼 후에도 정절을 지키지 않는다면 풍성한 삶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하거나 도적질하거나 속인다면 완전과 고결에 관한 관념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시기나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삶에 즐거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진실로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보다 풍성한 삶을 얻기 위해 우리가 행할 수 있는가하는 견지에서 스스로 보다 더 정확한 규범을 갖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이나 우리가 행할 일이란 일반적으로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대부분이 완전한 상태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완전해질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게 되셨습니다. 그는 고난을 극복하셨습니다. 그는 굶주림, 목마름, 추위, 더위, 고통, 슬픔 그리고 삶의 온갖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가 고난을 극복하셨을 때마다 완전한 상태에 좀더 가까이 이르게 되셨습니다.

정상적인 인간은 모두 자유의지를 갖고 있으며 당면한 문제에 대처하고 그것을 활동과 생각과 발전의 새로운 면으로 향상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경륜의 시대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가난한 집안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나 호사스럽게 궁전에서 자랐으며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높은 지위에 올랐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대화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자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 자신의 소망과 욕구와 갈망을 살펴보고 그러한 것을 다스려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또한 변화시켜야 합니다. 인간은 자기안에 싹트고 성장할 수 있는 신성의 씨앗을 지니고 있습니다. 작은 씨앗이 참나무가 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마땅히 이르러야 할 경지까지 자신을 높이 들어 올릴 수 있는 권세를 자기 내부에 지니고 있습니다.

환경은 우리의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는가를 환경이 결정해 주지도 않으며 벽이 우리의 감옥이 되지도 않습니다.

완전해지기 위해 인간은 여러 분야에 손을 대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남자이든 여자이든 인간은 완전한 남편, 완전한 아내, 완전한 아버지, 완전한 지도자, 완전한 추종자가 되어야 합니다. 완전해 이르는 길은 인간의 삶의 변화, 즉 모든 경우에 악을 선으로 대체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한번에 한 가지씩 하면 변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우리 행위에 있어서 영원한 견지에 따라 인도를 많이 받을수록 우리는 더욱 훌륭하게 지상 생활을 해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이 알수록 더욱더 우리의 소속감과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더욱 확실히 인정할수록 더욱 훌륭하게 인간에 대한 형제애를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생애 중 겐세마네 동산과 갈보리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많이 알수록 우리 생애에서 희생과 비이기심의 중요성을 더욱 알 수 있게 됩니다.

끝으로 풍성한 삶이란 단순히 장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삶의 기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높은 경지와 달성에 관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자비와 그의 속죄의 결과로 우리는 끝없는 존재의 상태 즉 불사불멸의 은사를 받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의 가르침에 따른다면 이 세상에서 풍성하게 살며, 내세에서는 더 풍성하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태초부터 우리의 귀감이 되는 자매들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



김 볼 대관장님, 우리의 사랑하는 카밀라 김볼 자매님, 바바라 스미스 자매님, 벨 스페포드 자매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머니요 시온의 딸인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차분한 마음으로 겸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되도록 성령의 지시와 인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태초부터 우리의 귀감이 되는 자매들”을 제목으로 택하였으며 엘마의 말에서 다음 구절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천사를 시켜 그의 말씀을 모든 사람, 곧 남자와 여자에게 전해 주시며 이뿐만 아니라 여러 번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어 지혜있는 자와 학식이 있는자를 당황하게 하시느니라.”(엘마서 32 : 23)

계시를 받고 간증을 얻으며 시현을 보는 등 성령의 은사에 관한 모든 것과 개인적인 의로움의 결과로 생기는 경건과 거룩함에 관한 모든 면 등의 영적인 일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는 주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동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외모나 성별에 의해 취하지 않으시며 주님을 찾아 섬기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남녀를 축복해 주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모든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끝까지 의롭게 그를 섬기는 남자와 여자를 모두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그의 왕국에 관한 모든 숨겨진 비밀을 알려 주시며, 그리하여 그들이 하늘에 까지 미치는 이해력을 가진 자가 되도록 할 것이며, 그들에게 눈으로 보

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인간의 마음에 들어와 본 적도 없는 것들을 알려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교성 76: 5-10 참조)나는 남자와 여자 모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진실로 나는 태초부터 여성이 훌륭한 영적인 재능을 익혀 왔다는 것을 주저함이 없이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그의 무한한 선함과 지혜로 태초부터 여성을 매우 존중해 오셨습니다. 주님은 아마 우리 중에 대부분이 전혀 상상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의 지상의 왕국에서 그리고 지상의 인간에게 행하시는 그의 일에서 여성을 존귀하게 하시며 고귀하게 여겨 오셨습니다. 올바르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지금부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여러분에게 과거의 우리의 자매와 미래의 우리의 자매가 관련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역사적인 사건의 장면을 함께 피하도록 여러분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건은 계시와 우리의 역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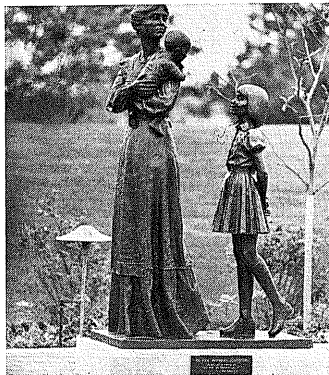
역사적인 사건의 장면 1 : 마리아, 축복받은 처녀

우리는 맨먼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아마 16세쯤 될 것이며,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하늘의 천사들 중에서 미가엘 다음가는 분입니다. 가브리엘은 그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지극히 높으신이의 아들이 될 것이요 그의 조상 다윗의 위를 받아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 성신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되리라”(눅 1 : 30-35 참조)

나는 마리아가 지금까지 지상에 살았던 가장 위대한 여성들 가운데 한 명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며 영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육체를 입고 태어날 하나님의 아들에게 육체를 주도록 선택되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갈릴리의 나사렛을 떠나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기로 정해진 장소가 될 유대의 베들레헴으로 여행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아기를 뱀 그녀의 배가 부른 것을 보며 오랜 여행 끝

머무르고 있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하나님의 아들의 성장기인 젊은 시절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로서 나사렛에 다시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그에게 기는 것과 걷는 것과 말을 가르치고 시마와 그 외에 그 당시 널리 알려져 있는 유대 종교의 다른 필수 요건을 익히도록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녀가 갈릴리의 가나에서 혼인 잔치에 참석하여 지시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며 그의 아들에게 기적에 관



에 그녀가 중앙에 큰 안뜰이 있는 길가의 대상 숙소에 늦게 도착한 것을 봅니다. 이 여관의 중앙의 안뜰에는 짐승들이 두고 그 주위에 있는 방들은 여행자들이 차지합니다. 동양식으로 된 이 여관 방들은 모두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요셉과 함께 짐승들이 밧줄로 매어 있는 곳에 잠자리를 깔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천사 합창단이 참석해서 그들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는 그녀가 오랫동안 인생의 어려움과 시험과 환란을 겪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요셉과 함께 애굽으로 여행하고 그곳에서 친척이나 유대인 친구와 함께

한 그의 공적인 성역의 첫번째 일을 행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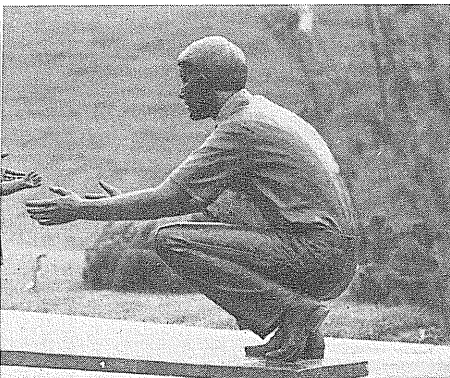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녀가 아들이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고 말하고 그녀에게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라고 말할 때(요 19 : 26, 27) 십자가 앞에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 후 요한은 그녀를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나는 우리가 마리아에게서 모든 여성에게 완전한 본보기가 되는 주님의 뜻에 대한 충성심과 순종심의 귀감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의 장면 2 : 이브, 모든 산 자의 어머니

나는 이브도 지금까지 지상에 왔거나

앞으로 올 모든 여성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여성 중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로서 자녀를 빛과 진리 안에서 양육하는 일에 관하여 미래의 모든 어머니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복음의 모든 축복을 받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며, 그녀의 후손이 똑같은 축복을 받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에 관하여 나는 단순히 “아담과 그 아내 이브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주의 음성을 들었던”(모세



서 5:4 참조)일, 아담이 최초로 회생의 제물을 바친 일, 천사의 곁에 있었던 일, 그리고 첫번째 인간인 아담이 일어서서 그의 후손을 타락시키는 모든 일에 관해 예언한 일에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켜 드릴까 합니다.

경전에는 “그 아내 이브는 모든 말을 듣고 기뻐하며 가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구원의 모든 계획이 요약되어 있는 단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된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행해진 가장 훌륭한 짧은 설교의 하나입니다. 이브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의 범법이 아니었더면 우리는 결코 후손을 갖지 못하였을 것이요, 선악이나 우리의 구속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

하는자 모두에게 주시는 영생을 알지 못하였으리라.”(모세서 5:11)

그리고 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이름에 복을 돌”렸으며, 남자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 즉 두 사람이 “아들 딸에게 모든 일을 알게 하였고” 이에 아담과 그 아내 이브는 하나님 부르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서 5:12, 16)

이와같이 태초에 가족을 온전케 하기 위한 완전한 모범은 보였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합니다. 그들은 함께 자녀를 가르칩니다. 그들은 영원히 계속될 가족 단위를 함께 이루고 있으며, 따라서 영생을 구하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얻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나는 나의 마음에 드는 역사적인 사건, 다시 말해서 만물의 영원한 계획에서 여성이 행하는 역할이 잘 묘사되어 있는 역사적인 사건을 다소 내 나름대로 선정해 봅니다.

역사적인 사건의 장면 3: 리브가, 이삭이 사랑한 여인

나는 한 여성이 가족에게 의로운 영향을 미치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본보기로서 계시에 나와 있는 모든 것 가운데 리브가가 가장 훌륭한 본보기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생애에 일어난 많은 일 중 한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창세기 25:21)

이삭과 리브가는 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후손을 갖기를 원합니다. 두 사람의 일치된 신앙이 관련되어 있음

니다.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 지라 그가 가로되 이같이면 내가 어찌 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창세기 25:22)

자, 이 구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읍니다. “여보, 당신이 주님께 물어보세요. 당신은 축복사요, 집안의 가장이잖아요.” 그녀는 주님께 간구하여 다음과 같은 대답을 들었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창세기 25:23)

이것은 다음과 같은 말입니다. “나 주는 리브가에게 아직 네 복중에 있으나 태어날 민족의 운명을 계시하노라”

그리고 리브가의 생애에 있었던 일화를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에서가 사십세에 헛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헛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의 근심이 되었더라”(창 26:34-35)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는 교회의 밖에서 결혼했습니다. 에서는 아브라함에게 계시된 영원한 성약에 따라 결혼하지 않았읍니다. 에서는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의의 표준에 따르기는 커녕 세상의 방법대로 생활하기를 택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일에 관하여 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헛 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을 곧 그들과 같은 헛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

미가 있으리이까”(창세기 27:46)

사실상 그녀의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야곱이 에서가 행한 것같이 교회의 밖에서 결혼한다면 생애에서 나를 위해 어떤 유익이 있겠읍니까?”

이삭은 나아가서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라는 권고와 충동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행하였읍니다.

“이삭은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이 말은 “너는 교회의 밖에서 결혼하지 말라”는 것을 뜻합니다.]

“일어나 밧단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브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그리고 나서 이삭은 사실상 그의 부친 아브라함의 축복을 야곱에게 약속해 주는 축복사의 축복을 그에게 주었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어서로 생육하고 번성케하시라 서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창세기 28:1-4)

진실로 리브가는 가장 고귀하고 훌륭한 여성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의 장면 4 : 사르밧의 과부

우리는 예언자 엘리야 시대의 식량 부족으로 고난을 받는 사르밧의 과부를 봅니다. 엘리야가 하늘을 단았읍니다. 그리하여 3년 반 동안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았읍니다. 주님은 엘리야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제하게 하였느니라” 엘리야는 사르밧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나뭇가지들을 줍고 있는 과부

를 보고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과부가 그렇게 하려고 갈 때 그는 다시 “청컨대 네 손에 딱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 여인은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엘리야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나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 나 여호와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녀는 자신의 신앙에 대한 시험을 받고 그 시험에서 합격합니다. 경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의 식구가 여러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후 엘리야는 그녀의 죽은 아들을 살려 주었습니다. (왕상 17장)

우리에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과부의 생애에 나타나 있는 여호와에 대한 신앙과 헌신의 본보기는 참으로 훌륭하

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했을 때 그들의 불신앙을 옛날 이 무명의 이스라엘 여인의 신앙과 대조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세 해 여섯 달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며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렘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눅 4:25-26)

역사적인 사건의 장면 5: 베다니의 두 자매

사랑을 받는 자매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어 드린 문둥이 시몬의 딸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에서 마리아는 주님의 머리와 발에 값비싼 향유를 발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대접받기도 하고 시중을 받았습니다. 한번은 마르다가 일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 주라 하소서” 예수님은 이 말에 다음과 같이 부드러운 말로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리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눅 10:40-42)

사랑을 받는 자매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두 자매는 나사로의 무덤에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 또 마르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 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는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행한 것처럼 힘차게 간증했습니다. 바로 그녀가 주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요11장)

훌륭한 가사 기술을 몸에 익혔으며, 두터운 신앙을 간직하신 이 사랑하는 두 자매에 관하여 이 이외에 무엇을 더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역사적인 사건의 장면 6 : 열려진 무덤 앞에서

복음서 저자는 우리에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과 열두 제자가 갈릴리에서 선교 여행을 할 때 그들과 동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갈릴리의 이 그룹에 남녀가 함께 있었음을 봅니다. (마 17 : 22-23)

우리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 열려진 무덤에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그녀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최초의 인간이 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또한 우리는 천사들이 무덤에 있는 이 충실한 여인들에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시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삼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대”(눅 24 : 6-7)라고 확인하는 것을 봅니다.

누가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모든 것을 열 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눅 24 : 8-10)

역사적인 사건의 장면 7 : 현대의 이스라엘 자매

예나 다름없이 오늘날에도 하나님 왕국의 자매들은 영적인 힘을 갖고 있고 자선 봉사를 베풀며, 진리에의 헌신을 다하며, 개인적인 의로움을 지닌 큰 기둥입니다. 옛날의 자매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에게 육체를 주었으며, 또한 옛날의 충실한 자매들처럼 자녀를 빛과 진리 안에서 양육하며 자녀에게 주님을 믿는 신앙을 갖도록 가르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가르칩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정부에서 그리고 각처에 있는 훌륭한 조직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그의 아내 엠마 스미스를 위해 받은 계시에서 우리는 지상에서 주님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촉진시키는 데 우리의 아내들이 행할 수 있는 일의 한 본보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습니다. “네가 부름받은 직분은 나의 종 요셉 스미스 이제 곧 네 남편이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위안하는 말로써 위로하는 일이라.

“너는 저의 손으로 성임되어 경건의 말씀을 풀이하며 나의 영이 주는 것에 좇아서 교회 회원을 간곡히 권면하라.

“저가 네게 안수하리니 너는 성신을 받을 것이요, 많은 것을 기록하며 배울

시간이 있게 되리라.

“...저를 남편으로 삼은 것과 저에게 임할 영광을 기뻐하라.”(교서 25 : 5, 7-8, 14)

결혼한 여성이 거할 곳은 가정으로서 거기에서 남편을 받들고 내조하며, 여성이 거할 곳은 교회로서 거기에서 경전의 말씀을 풀이하고 현명하게 기록을 작성하고 많은 것을 배웁니다. 또한 여성의 직분은 교회 안에서는 물론 밖에서도 이웃을 위해 자선 봉사를 베푸는 것이며, 여성의 직분은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 사업을 행하는 것이며, 진실로 여성의 부름은 어떠한 장소나 어떠한 환경에서도 선행을 하고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시온의 딸을 봅니다. 우리는 혼즈 밀(대학살 사건)에서 그들이 슬피 우는 것을 보며, 그들이 미주우리주에서 불타는 집 옆에서 있는 것을 보며, 그들이 윈터 쿼터스에서 노천 무덤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자매들은 옛날의 자매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나쁜 입법안으로 가정을 파괴시키려는 세력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의회에 진정 운동을 하며 투표함 주위에서 선의의 세력을 모으기도 합니다. 그들은 주님께 그들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나라의 운명을 인도하시는 도움의 손길을 펴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형제들은 말일의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외로운 처지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충실한 자매들이 현세를 떠날 때 위대하신 여호와의 사업이 영광스럽게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유린당하고 영적으로 억압된 자들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의 장면 8 : 우리의 해의

왕국의 자매들

끝으로 우리는 해의 왕국의 안식을 누리는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시온의 딸에 관한 광경을 봅니다. 그들은 세상을 이겼으며, 큰 환난을 견디어 냈으며, 그들에게 지명된 모든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복 받은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마 25 : 34)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홀로 있지 않으며, 주안에서는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고 또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다는 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여성은 리브가와 같이 가족을 의롭게 인도하는 안내자와 빛이 되도록 임명된 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중에서 더 많은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될 방법에 의하여 모든 일이 행해지도록 계획하고 준비하도록 임명된 자입니다. 우리는 무한히 경이롭고 영광스러운 제도인 가족, 즉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에게 유채를 입혀 주며, 그들을 빛과 진리와 의 가운데서 양육하며,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돌아가서 영생의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게 해주는 제도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확신하며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태어난 우리의 영혼에 그와 같은 느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두 그와 같이 되도록 허락해 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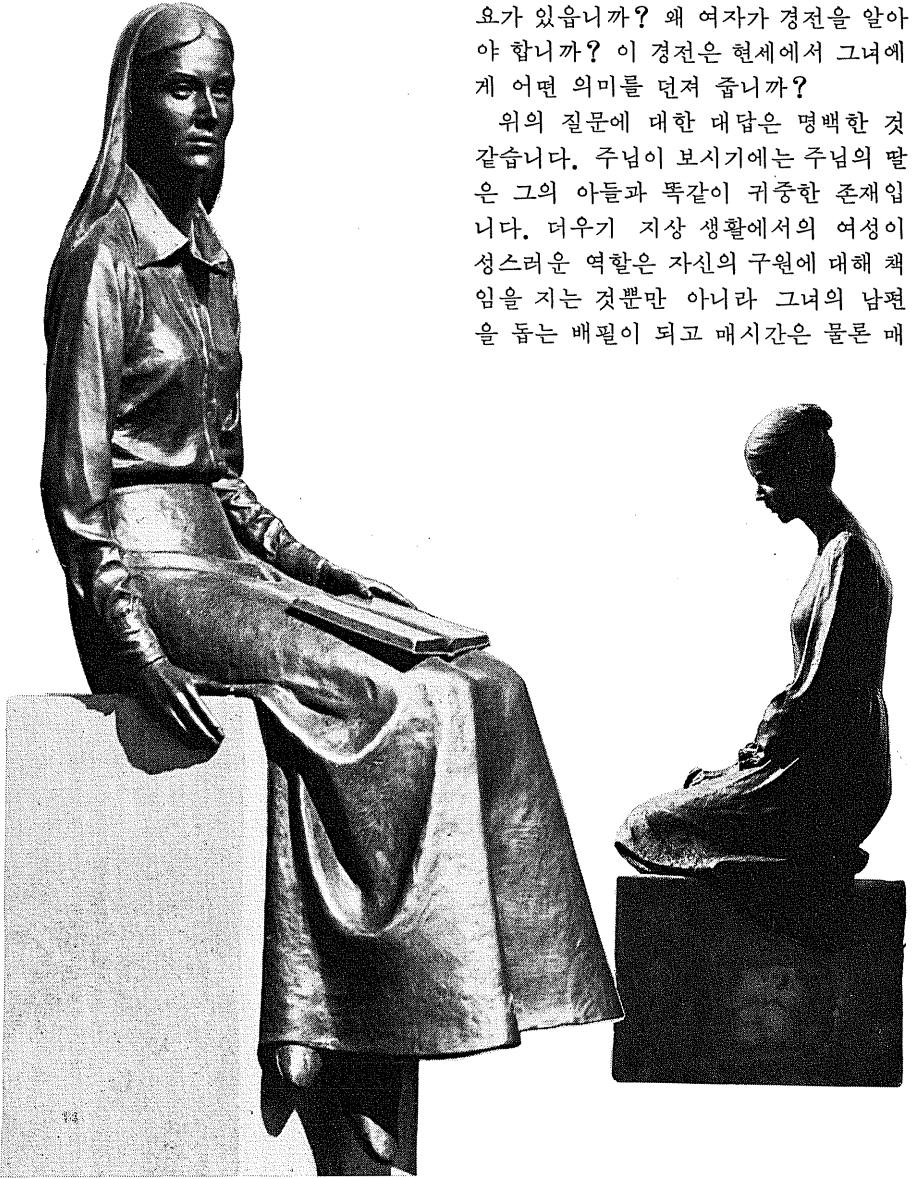
여성과 경전

매리앤 시 샤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나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한복음 5:39)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남자가 경전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과 같이 여자도 경전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 여자가 경전을 알아야 합니까? 이 경전은 현세에서 그녀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 주니까?

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명백한 것 같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주님의 딸은 그의 아들과 똑같이 귀중한 존재입니다. 더우기 지상 생활에서의 여성이 성스러운 역할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의 남편을 돕는 배필이 되고 매시장은 물론 매



일 그녀의 자녀를 인도하는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스러운 역할은 그녀에게 경전을 공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전을 실제로 읽고 있는 여성이 많이 있으나 또한 경전 공부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여성도 많습니다. 인간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따라 생활할 수 밖에 없다면 모든 어머니는 교리와 성약 68편을 읽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자기 자녀가 8세가 되기 전에 가

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첫번째 일의 하나는 모친이 손을 잡고 이층 침실로 데려 가신 것이었습니다. 그 방에는 두 개의 침대가 있었는데, 하나는 나의 부친이 주무시던 침대였고 다른 하나는 다른 쪽에 있는 바퀴가 달린 작은 침대였습니다. 나는 마치 어제처럼 그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층에 올라갔을 때 모친은 바퀴가 달린 작은 침대 옆에 앉으셨습니다. 모친은 내가 모친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게 하셨습니다.



르칠 책임이 있는 일에 관해 주님이 부모들에게 주신 계명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회개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 등의 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녀는 그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교성 68 : 25, 2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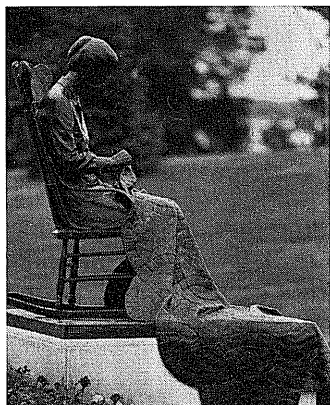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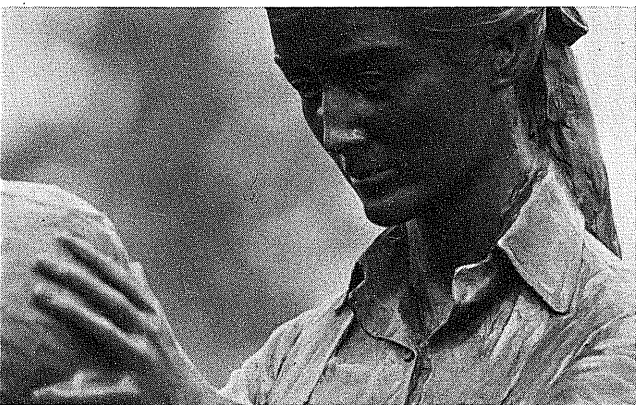
조지 엘버트 스미스 대판장의 모친은 주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감명깊은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나는 말일성도 어머니의 슬하에서 교육을 받았습니

다. 모친은 나의 손을 포개서 잡으시고는 첫번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그 기도를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그 기도를 잊고 싶지 않습니다. 천사 같은 모친이 침대 곁에 앉아 내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은 나의 생애에서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추억의 하나입니다. ...그 기도는 나에게 하늘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 기도는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손질이 미치게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친은 어린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한 그 모든 의미를 설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복음을 나눔 [테저렛 출판

사, 1950년], 147—48페이지)

윌포드 우드럽 대판장은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자기 후손에게 다른 어떤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언제 이 교육이 시작됩니까?’ 라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우리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의 생명이 육신의 장막 속에 들어 갈 때”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때의 어머니의 상태가 그녀의 복중에 있는 아기에게 영

후에 아기가 보고, 듣고, 느끼며 어머니의 행동을 본받을 때 참으로 어머니의 영향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신의 책임을 알고 자기 자녀를 가르칠 준비를 갖춘 여성은 자신의 영적인 의무를 모르고 있는 어머니보다 훨씬 나은 자입니다. 통찰력이 있는 어머니는 자신과 자기 자녀가 자녀의 생애의 최초의 8년 동안에 분리된다는 것에 관한 모든 제안에 대하여 주의깊게 생각할 것입니다.



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기가 탄생한 때부터 한평생 동안 어머니의 가르침과 모범은 그 자녀를 크게 좌우하고 지배하며, 현세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녀의 영향을 느낍니다. (윌포드 우드럽 설교집, 제 1 판, 북크래프트사, 1946년, 269페이지)

윌포드 우드럽 대판장의 이 말씀은 많은 임신부가 자기 육체를 욕되게 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환각제를 복용해 온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어머니처럼 똑같이 퇴보된 증상을 갖고 있음은 인정된 사실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가 그렇게 영향을 받는다면 출생

우리는 매일 유혹을 받으며 이를 극복함에 있어서 성경과 물몬경에 나와 있는 성구만을 읽는 것으로는 족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는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또한 여성은 이 경륜의 시대에 주님을 통하여 그의 예언자에게 주어지는 경전의 말씀으로 인도와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전의 말씀에는 생소한 구절이나 난해한 의미를 내포한 구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전은 현대의 언어와 일상어로 되어 있습니다.

구세주의 재림이 가까와 짐에 따라 의로운 자를 끌어내리려고 사탄이 날뛰고 있으므로 말일성도 여성은 결혼 성약의 신성함과 가족 단위의 기본적인 영원한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강화해야 합니다. 말일성도 여성은 현대 예언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일 어떤 여성이 세상에서의 여성이 지위에 관한 현재의 대립되는 견해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면 예언자 말씀에 나와 있는 권고를 구할 때 그와 같은 의



문은 풀리게 될 것입니다. 복음 계획에 설명되어 있는 여성의 역할에 관한 지시는 아담의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강해짐에 따라 예임된 자신의 사업을 완수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개인으로서 여성은 계명을 지켜야 하고, 아내와 어머니로서 그녀는 영감받은 권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생활하기 위해 계명을 알아야 합니다.

경건은 여성의 영예로운 운명을 가르쳐 줍니다. 예언자들은 여성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성은 나약한 존재라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육체적으로는 그들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와 신앙의 면에서 어떤 남성이 참된 확신을 가진 여성에 필적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사자의 굴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신앙을 가졌읍니다만 여성들은 자기 아들이 사지가 찢기는 것을 보았으며, 악마와 같은 잔인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고문을 견디어 냈는데 이는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항상 더욱 기꺼이 희생을 하고 있으며, 안정과 경건의 능력과 도덕과 신앙의 면에서 남자에 필적하는 사자들입니다.”(복음 교리, 제12판, 데저렛 출판사, 1920년, 440페이지)

여성들은 자신의 생애에서 진리를 읽고 공부하며 진리대로 생활함에 따라 성령이 그녀의 영에 지시하는 대로 축복과 인도를 받게 됩니다.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곧고 좁은 길은 그녀에게 영생을 향해 나아가라고 가리키고 있으며 영생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

가장은 어떻게 가족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는가

닐 제이 플린더즈

소년이었을 때 나는 부친과 함께 가족 수용장에 가곤했습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농장에 살았고 때때로 거기서 가족을 팔기도 했습니다.

소와 돼지와 양의 축사가 강둑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방책이 쳐진 다리가 강에 놓여 있었으며 그것은 맞은편 강둑에 서 있는 가공 공장의 맨 위층으로 나선형으로 올라가 있는 경사로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도살될 가족들은 다리로 모여들어 경사로로 올라오게 했습니다. 도살을 행하는 자는 현명한 해결책을 강구해 냈습니다. 그들은 검은 염소 한 마리를 훈련시켜 양 우리속에 들어가게 하여 다른 양과 섞이게 한 후 그들을 다리를 건너 가공 공장의 문을 통해 경사로까지 인도하게 했습니다. 출입구 앞에서 염소는 옆으로 비켰으며 그 양떼는 곧장 가공 공장으로 달려나가 최후의 운명을 맞게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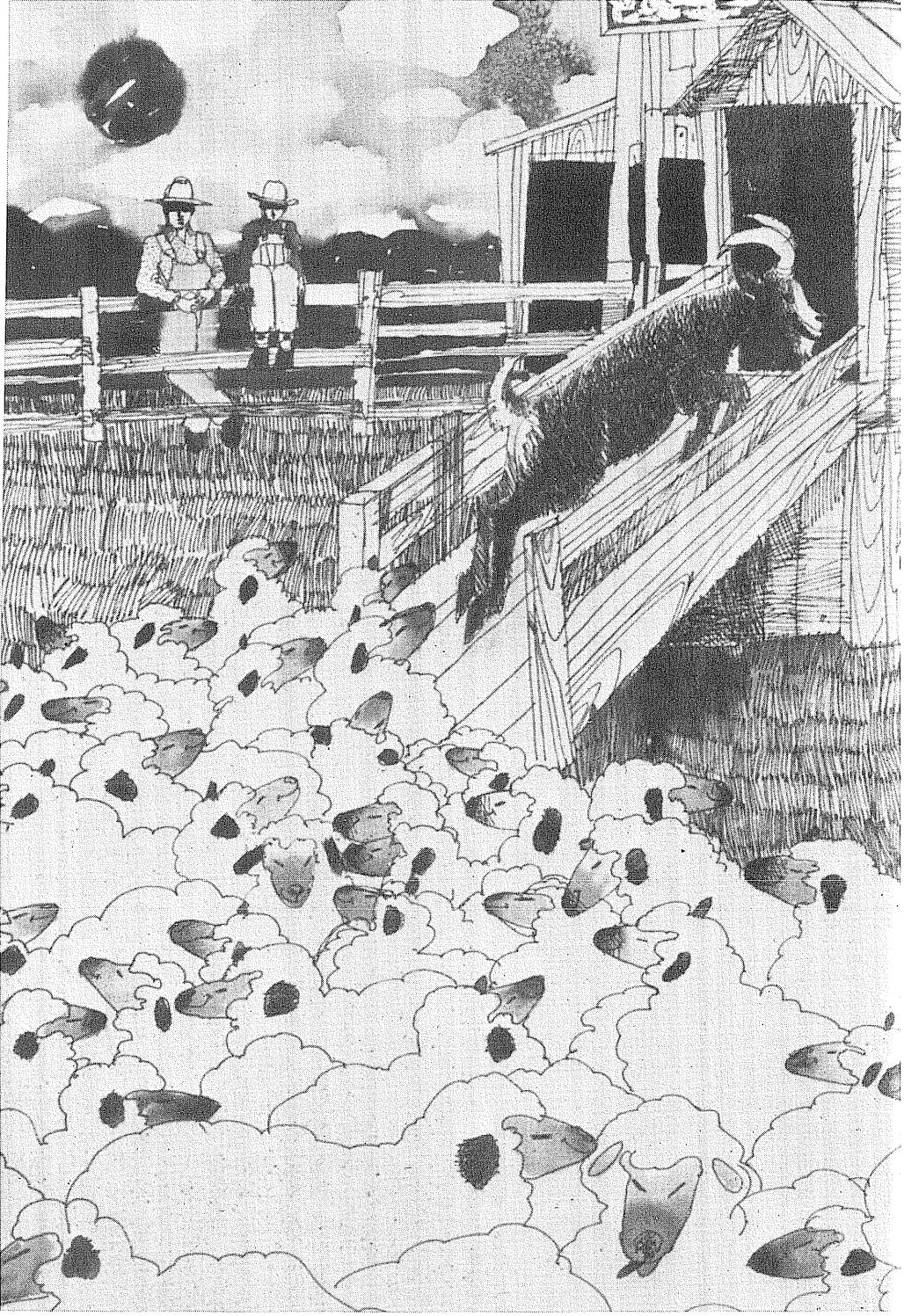
나는 이 광경을 바라보았을 때 나의 부친이 이에 관해 설명했음을 기억합니

다. 그는 잠깐 멈추어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너에게 교훈이 되게 하라 네가 따르는 자를 주의하라 네가 어디로 인도되고 있는지 확인하라.”

나는 결코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부친이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가족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시는 방법에 관해 생각할 때, 나의 부친은 그것을 행하실 때 단순하면서도 영구적인 방법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대한 교훈을 가르치는 기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기회는 종종 일상 경험에서 일어나며 여기서 조금 거기서 조금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순간을 잘 포착해야 합니다.

아버지로서 내가 배운 가장 인상적인 교훈은 나의 자녀들은 내가 가르치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나의 행위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내가 힘써 노력해야 할 목표는 나의 자녀들과 나와와 관계를 그들의 친구와의 관계보다 더 친밀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10대의 자녀들에 비하여 어린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은 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양탄자 위에서 구르거나 그들을 간질이거나, 이야기를 해주며, 그들을 웃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10세 이후에는 그것이 점점 어려워짐을 느꼈습니다. 나이가 든 자녀들은 그들이 부모에게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는 있지만 그들의 동료 그룹과 더 강한 유대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내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일은 나의 자녀가 다른 사람과 갖고 있는 관계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며... 그들이 다른 그룹에게로 이끌리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가족에게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부모를 그들의 자녀에게 보다 훌륭한 교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들과 특별한 경험을 갖는 것이 요구됩니다. 나는 이러한 것을 매우 경험해 왔습니다... 말을 타고 광야를 여행하는 것이나 낚시 여행은 남자 애들에게는 훌륭한 것이었으나 딸아이들은 다소 색다른 것을 기대했습니다. 때때로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유행에 뛰진” 무용 스텝을 가르치는 것 그들의 학교와 사회 생활을 아는 것, 왜 젊은이들이 그들이 행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며 그들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 밖으로 그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은 딸 애들에게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중요한 비결은 여러분이 행하는 일과 그것이 주는 의미 사이의 연결을 알도록 돕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이 진실로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무엇인가 희생하고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나는 성공적인 아버지라고 생각되는 현명한 친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몇몇 작은 싸움에서 기꺼이 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자립하여 우리의 손자들을 기를 수 있는 그들 자신의 가정을 가질 때까지 양육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와는 다른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고서는 이것을 성공적으로 행할 것 같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결혼 생활에서 서로 “주고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것은 필요합니다. 내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서 맞서야 하며 어디에서 “패배”를 기쁘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이 타협을 위해 절대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일에 견고히 서기를 원한다면 사소한 충돌에 지는 것도 가치있는 일입니다.

항복해야 할 장소와 굳건히 맞서야 할 장소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우리의 필요 사항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신의 경험에서 영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서는 영적인 지시를 남에게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성신이 각 가정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 브리감 영 대관장님이 가장에게 주신 다음의 지시에서 많은 교훈을 배웠습니다.

“가장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주님의 성령에 의하여 인도되는 축복을 누리고 그들의 자녀들의 모태로부터 성

신을 받도록 항상 기도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성신과 권세로 충만한 가운데 융성하는 나라를 보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행하십시오. 이외에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가 이행해야 할 다른 의무는 때가 이르면 주어질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청결히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의 만족과 위안을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결코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 모두는 주

실에서 두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당황하게 하거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해서도 안됩니다. 위선은 우리가 물리쳐야 할 힘겨운 과제입니다.

가장들은 자녀에게 옳은 것과 그릇된 것의 차이점을 명백히 밝혀 줄 때 그들의 자녀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고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님의 영이 가져다 주는 위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같이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학문의 성취는 세상 사람들의 것을 능가하지 못할 것입니다.” (설교집 1 : 69)

나의 아내가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 성령의 영향력을 받게 되기를 간구할 때 마다 나는 아버지로서 내가 할 바가 무엇인가를 더 잘 알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가르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교성 68 : 28참조) 이 책임은 회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의 사

것입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할 때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으로서 체험한 가장 보람된 일의 하나는 나의 자녀들의 성공을 지켜 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가정의 밤이나 교회의 프로그램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취했을 때 어떤 아이는 매우 두려워하며, 또 다른 아이는 매우 서투른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영적인 책임 가운데 하나는 자녀들에게 그들의 재능을 발휘하는데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나의 아내는 이렇게 하기 위한 훌륭한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종종 가족 앞에서 한번에 한 사람씩 아이들을 불러 그녀의 곁에 세우고 그 아이에 대해서 특별한 몇 가지 칭찬을 해줍니다. 그들은 약간 낮을 붉히기는 했으나 매우 기쁜 표정을 짓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이렇게 해서 언제나 보다 밝은 장소가 되었습니다.

가장이 그의 가족에게 영적인 양식을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가치있는 방법은 그의 가족이 다른 훌륭한 자들에 의해 선한 영향을 받을 기회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을 교회로 데리고 가며, 자녀들을 신학 연구원 중등부에 등록시키고 학교와 교회 교사들에게 그들의 목적과 우리 자녀들의 성취에 관해 의논하고 나의 아내를 상호부조회에 참석하도록 격려하고 훌륭한 분들을 가정으로 초대하는 일 등은 우리 가족의 필요 사항을 만족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모든 일을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장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의롭게 그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그들의 어머니를 자신이 선택하는 것과 같이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 그들의 어머니입니다. 그것은 어머니는 어떤 다른 사람보다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가정에서 의를 구하고 의롭게 양육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남편은 그의 아내와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러한 감정을 행동으로 나타내고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아내에 관해 느끼는 바를 이야기해 주며 그녀의 소망을 존중하고 그녀의 의견을 듣고, 친구가 되며, 그녀의 관심과 주의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받기 위해 노력하며, 말과 행동으로 감사를 표시하며 자신의 느낌과 문제를 서로 나누며 그녀의 취미를 존중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여러분의 시간 계획을 세우며, 여러분이 그녀와 반려자가 됨을 감사하며, 그녀의 간증을 존중한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가족을 영적으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그녀의 개인적인 의로움을 인정해 주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아내가 가정에서 영성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전생애를 영적인 안목에서 관찰하도록 도울 때 나는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를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동시에 나는 그들에 의해 영적인 양식을 받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영적인 양식을 주려는 이노스의 아버지의 노력을 즉시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지 못했음을 설명해 주는 이노스의 경험을 읽고 나는 용기를 얻습니다. (이노스서 3절) 때때로 우리의 노력은 거의 유익하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것들은 무시되어지거나 기껏해야 마지못해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렸을 때 유다스라는 이름을 가진 검은 염소를 지켜 보았던 그러한 경험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시일이 걸리지만 이윤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나에게 증명해 줍니다. *

닐 제이 플린더즈, 신학 연구원 대학부 및 중등부와 기록, 조사, 평가 책임자.

우리 가정의 재산을 관리함

존 플린더즈

나는 남편인 닐이 보여 준 모든 훌륭한 일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나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가족의 영적인 분위기는 주로 아버지의 영성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영적인 힘을 갖지 못했다면 이러한 것을 그의 아내나 자녀에게 줄 수 없을 것입니다. 나의 남편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준 몇 가지 실례를 열거하겠습니다.

1. 수년 전에 우리는 자녀의 장점과 약점에 관해 기록하기로 결정하고 자녀들과 함께 2~3개월마다 개인 접견을 갖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개인 바인더를 마련하여 각 자녀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 바인더의 왼쪽에는 “약점”이라고 적은 종이를 오른쪽에는 “장점”이라고 적은 종이를 끼워 두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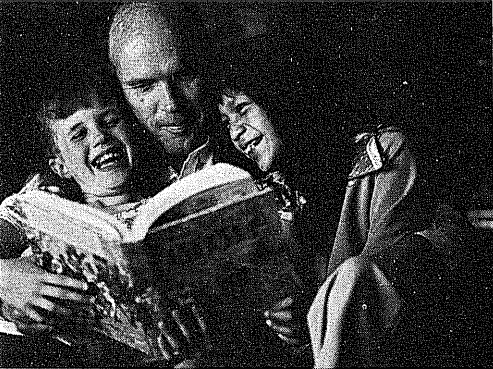
각 자녀와 개별적으로 갖는 특별한 시간인 접견시에 우리는 이 두 가지 분야를 토론했습니다. 날짜 밑에 우리 세 가족이 현재 갖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알며 특히 훌륭히 행한 일과 과거 수주일 동안 향상된 태도를 기록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우리의 가정과 다른 가족과 그들의 개인적인 관심사에 관해서 그들의 느낌을 나타냈습니다.

2. 일곱 자녀가 가정에서 서로 사이 좋게 지내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자녀들과 함께 일할 때 그들은 일을 사랑하게 되고 “일”은 “즐거움”을 안겨 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는 언제나 자녀들에게 그가 어렸을 때 행한 집안일에 대해서 말해 주기도 하고 또한 일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은 봄에는 정원을 가꾸었습니다. 우리는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김을 매고 잡초를 뽑아 냈습니다. 여름과 가을에는 각 어린이들은 노력의 결과로 무우를 뽑고 딸기나 옥수수를 따며 감자를 파내는 일 등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닐은 가르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할 뿐 아니라 정원을 가꾸는 일을 선교사 준비와 사후의 생애를 위한 준비다시 말해서 올바르게 양육하고 훈련하여 적(잡초)을 멸망시키는 일의 중요성과 비교해 줍니다. 우리가 매일 행하는 단순한 일에서 많은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3. 우리 가족이 갖게 된 또 하나의 의미깊은 경험은 경전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저녁 식사 후 10분 내지 15분간 경전을 읽습니다. 우리는 현재 물몬경을 읽고 있습니다. 각자는 차례로 돌아가면서 책을 읽습니다. 아직 학교에 다니지 않는 자녀들도 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따라 읽고 있습니다...때때로 그들은 “지금 어디 읽고 있나요?”라고 묻기도 합니다. 이 꼬마들에게 이 시간은 경전을 읽는 시간임을 일깨워주는 것은 또한 가치있는 일입니다. 닐은 이 시간



에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통찰력을 주었습니다. 그는 종종 칠판에 한 개념을 적거나 이야기의 일부를 연기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린이들이 이것을 좋아합니다.

4. 금식에 목적이 있을 때 금식 주일은 보다 뜻깊은 모임이 됩니다. 날은 토요일에 금식의 목적(와드에서 앓고 있는 자 또는 특별한 축복을 필요로 하는 자)을 말할 때 그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가 어린 자녀들의 개인적인 기도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때 그것은 그들에게 특별한 것입니다. 종종 나는 남편이 자녀에게 매일 기도하고 있는지 묻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가 식사 시간이나 기도 시간에 그 날에 있었던 특별한 일에 관해서 토론할 때 자녀들은 보다 큰 감명을 느끼며 감사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5. 가장은 또한 그가 지닌 신권을 행사함으로써 그의 가족에게 영적인 양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는 태도로써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자녀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주님의 일을 기쁘게 행하고 있음을 알 때 특별한 축복을 받습니다. 날이 매달 나를 신전으로 데리고 가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이러한 모범은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부모인 우리가

우리의 우선 순위에 따라 잘 행하도록 해주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행하는 일에는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그들은 이것을 협동의 태도에서 나타내 보여줍니다. 우리는 신전에 가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결혼하도록 가르치는 중요한 방법임을 압니다.

6. 우리 가족에게 가장 훌륭한 시간은 가정의 밤입니다. 우리는 가족과 함께 보낼 가장 중요한 시간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공과를 차레로 가르치고 게임을 인도하고 노래를 부르고 특별한 경험을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날이 감리합니다. 그는 가족의 정서적인 면을 관찰하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말씀합니다.

서로를 보다 잘 알고 복음의 원리를 철저히 가르치는 것은 이상적인 것입니다. 가정의 밤 동안에 우리는 자녀들의 지식을 시험할 기회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의 개념이 사실상 명확하지 않은데도 그러한 개념이 명확하다고 생각하는 때가 종종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어린 자녀들은 교회의 대관장과 국가의 대통령을 명백히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성공을 거둔 부문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효과적인 것은 다른 가족에게는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술 선해서 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내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그가 가진 훌륭한 자질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결혼이란 간증과 같이 생기에 찬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

존 플린더즈, 가정 주부 초등학교 교사

나의 아내에 관해 어떻게 많은 것을 알았는가

토마스 더블류 라단이



내가 나의 결혼 상대자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충분히 표현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결혼했을 당시에 내가 그녀를 사랑했던 것보다 이제 훨씬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내를 신뢰하고 존경하고 의지하고 무엇보다 그녀를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나는 결혼 이후 나의 아내에 관한 것을 다시 발견하였으며 지금도 많은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우리의 훌륭한 자매와 함께

대화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나는 나의 결혼에서 경험했던 좌절감을 그들과 나누었습니다. 이 자매들은 활동적이고 헌신적인 교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신권을 존중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되고 주부가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했으며, 그들이 자신의 남편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혼 생활과 가족에 대한 공헌에 대해 때때로 감사하고 있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개인적으로 행하기를 원했던 일들은 남편과 자녀들이 행하기를 원했던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남편을 매우 사랑했지만 그들은 남편이 그들의 생각과 느낌과 관심사에 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에 그들의 결혼 생활에서 일치감을 갖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젊은 부부로서 교회에 입교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바친 교회의 지도자의 모범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후 10년 동안 아내와 나는 동시에 3~4번의 부름을 받았으며 그 동안 두 자녀가 더 생겼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나 가사 이외는 거의 아무 것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나는 자녀 문제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단지 불평하면서 마지 못해 승인을 표시하거나 가끔 반대 표시를 했습니다. 나는 가정의 밤을 갖는 대부분의 책임을 나의 아내에게 맡겼습니다. 아버지로서 책임을 소홀히 함으로써 나는 아내에게 어머니로서의 짐을 더 무겁게 해 주었으며 그녀에게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해 거의 아무 것도 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를 일깨워 준 것은 폴 에이치 던 장로의 말씀이 수록된 테이프였습니다. 그는 많은 다른 것을 말씀했지만 그 중에서 아내는 경전과 영적인 일과 학문에 관한 질문에 대답이 될 지식을 얻기 위해 남편에게만 의존해서는 안되며, 아내는 자신의 연구로 지식을 늘리며 자신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시간을 가지며 격려를 받아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 가운데서

나 세상적인 일을 추구하는 면에서 그들의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의 아내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축복을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없음을 생각하고 놀랐습니다. 나는 또한 내 자신의 취미와 여흥을 즐기기 위해서 시간을 갖기를 노력했으나 나의 아내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과 이와 관계되는 일에 관해 오래 생각한 후 나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의 일부는 마태복음 19장 5—6절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에게 주는 말씀으로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힘을 합할 때 비로소 완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몸의 한 지체가 굶주리면 온 몸이 고통을 받습니다.

점순히 나는 내가 발견한 것을 나의 아내와 함께 나누기 위해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그녀가 하고자 하는 것을 행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실행하기 위한 시간을 가질 것을 제언했습니다. 그녀는 그러한 것을 고려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너무나 많은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정 밖에서 갖는 취미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관해 토론하고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그녀는 야간에 갖는 신학 연구원, 값진 진주반에 등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떠한 불안도 없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주 좋은 기분으로 귀가했으며 그녀가 배운 새로운 원리를 나누며 흥미있는 공과를 토론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일과 자녀 이외의 사항에 관해 무엇인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주일 동안 매주

하루 저녁에 아내를 대신해서 어린 자녀들을 돌보는 일을 나에게 가정에서의 그녀의 내조에 대해 보다 잘 알 수 있게 해주었으며, 자녀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주었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에게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어머니의 반에 관해서 듣고 싶어했습니다. 행복감은 점점 여러 가족에게 전파되어 갔습니다.

그후 때때로 다른 과목에 대해서는 통신 과정을 이수했으며, 결국 그녀가 수년 동안 지내 왔던 꿈, 즉 그림 공부를 계속하겠다는 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20여년 간의 결혼 생활에서 나는 아내에 관한 이 중요한 면에 대해서 잊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내가 그녀의 미술의 재능을 개발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 만만하게 되었으며, 우리의 관계는 더욱 풍요로와지며 더 훌륭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다 잘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부부는 서로 완전하게 많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충분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자매들 가운데 아내가 나에게 이야기 하기를 꺼려했던 것처럼 그들의 남편과 이야기 하기를 주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내들이 남편과 가족의 필요 사항보다 덜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내가 신학 연구원에 입학했을 때, 우리는 경전에 대해서 보다 흥미 있고 통찰력있는 토론을 했으며, 교회 일

에 관해 보다 자주 토론했습니다. 특별히 뜻깊은 경험의 하나는 우리가 신전에서 모임이 끝난 후 서로 조용하게 이야기하였으며, 그녀는 엔다우먼트 의식에 대해 이해하고 있던 바를 나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성령은 그녀가 말하고 있는 것이 진실임을 간증해 주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는 우리의 관계에서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녀가 신학 연구원 반이 그녀에게 이 새로운 지식만을 부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증가된 자신감과 관심의 범위가 그녀에게 전에 그녀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분야를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영적인 통찰력의 결과로 그녀는 중요한 영적인 진리에 관한 나의 지식을 높여 주고 넓혀 주었습니다.

나의 아내가 나와 가족에게 행한 일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능을 가진 자와 내조자로서 나의 아내를 이해하는 것은 나에게 각 배우자는 진보와 완전성에 관한 상호의 목표를 위해 모두 참여해야 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영원한 결혼 성약이란 우리의 완전한 상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상호 성장의 성약입니다. *

토마스 더블류 라란이, 신학 연구원 대학부 교
사 벨로이드 위스콘신 스테이크 고등평의원

나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힘을
합할 때 완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질의 응답



프랭클린 디 리차즈
칠십인 제일 정회회

“저는 교회의 일과 다른 책임 때문에 너무 바쁘므로 다른 일을 행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교회 직책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거절해서는 안된다고 배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옛날의 고대 니파이와 같이 나도 훌륭한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나의 부모가 나에게 가르친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일은 교회의 지도자를 따르며 교회에서 봉사할 기회를 결코 거절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나의 생애에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나는 때때로 부름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영화롭게 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회상해 보면 다행히도 나는 교회에 봉사할 기회를 한번도 거절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활동에 참

여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고 싶어하는 많은 일을 행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더우기 그렇게 할 시간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리차드 엘 이반스 장로는 그의 짧은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바쁘기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바쁠 때는 우리가 바쁘다는 그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에 얽매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에 우리 자신을 바치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을 단순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우리가 진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새롭게 평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다 충실한 삶을 누리며 단순한 기계적인 것을 줄이고 의미깊은 어떤 일을 완성해야 합니다. 시간을 될 수 있는 한 줄이고 또 한 의미없는 행동을 될 수 있는 한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교회의 부름을 거절하기 전에 여러분은 이반스 장로의 제언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 시간을 절약하고 우리가 진실로 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새로 평가하십시오. 우리는 우선 순위를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재산을 아낌없이 바치기로 약속한 주님과 성약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장 으뜸되는 일을 맨먼저 함으로써 삶을 단순화하고 또한 덜 중요한 활동을 없앨 때 우리는 교회의 임무를 받아들일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만
(37페이지에 계속)

(28페이지에서 계속)

일 우리가 세심하고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려해 보았지만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면, 지역의 교회 지도자와 함께 그 요청에 관해 의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능력으로는 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교회 부름도 받아들일 것을 요구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서 그것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채 여러 가지 책임을 받아왔으며, 그것을 받아들여 최선을 다했을 때 주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능력 이상으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한 경우 진정으로 우리는 보다 나은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과거의 자기 자신을 능가함으로써 발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봉사할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언자 요셀 스미스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실 때 나는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나의 철칙으로 삼아 왔습니다...”(교회 정사 2: 170)

주님은 우리에게 그의 종을 통하여 명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교회의 지도자를 따르고 봉사할 기회를 거절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할 때 우리가 봉사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성장과 발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진실함을 간증드립니다.

✱

☆

☆



빅터 비 콜라인

유타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복음의 원리를 따르기 위해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까?”

부모가 아들이나 딸에게 명백히 사악한 행위나 반사회적이며 자신을 멸망시키는 어떤 일을 요구하거나 행하도록 명령하는 극단적인 예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는 브리감영 대관장이 교회의 자매들에게 그들의 남편을 지지하고 존경하되 그들의 남편을 따라 지옥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충고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부모 중 한분이 그의 자녀에게 복음의 표준과 어긋나는 어떤 일을 행하도록 제안했을 때 그 젊은이는 먼저 다른 한분에게 도움과 조언을 구하여야 합니다. 건전한 부모로서 그들의 자녀에게 그릇된 일이나 사악한 일을 요구하거나 시키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부모가 정신 질환이나 술이 취해 있을 경우 이외는 이러한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부모가 회원이 아닌 가족의 경우 종종 부모가 그의 자녀에게

주일날에 일하도록 시키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안식일을 범하도록 하며 십일조를 내지 못하게 하며 “금해진” 음료를 마시게 하거나 복음의 원리에 위배되는 일을 행하게 하는 예를 종종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이나 세사적인 율법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들의 보호자이며 그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는 분들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공공연하게 거역함으로써 해결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은 교회 표준에 따른 합당한 방법으로 요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스도의 방법과 같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금식과 기도는 교회의 합당한 젊은이들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개인적인 계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며, 이렇게 행함으로써 문제를 건설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나 알력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나는 한 자매가 그의 남편(비활동적인 장로)에게 십일조를 바치지 않는 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불평했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 자매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당신이 십일조를 바치지 않으시면 그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

며, 그리고 자녀들과 또한 이 계명에 따르는 축복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당신은 원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는 이와 같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자매는 몹시 화가 났으며 그녀의 결혼 생활에 이 문제로 큰 불화가 생기게 되었으므로 그 자매는 감독을 찾아가서 남편이 십일조를 바치도록 그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감독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자매님의 남편은 훌륭하며 의로운 분이십니다. 만일 자매님이 지금은 십일조를 바치지 않지만 의로운 가운데 그를 지지한다면 주님은 자매님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을 받게 해주실 것입니다.” 후에 그 남편은 이러한 감독의 권고를 듣고 크게 감동을 받아 다시 교회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결혼 생활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는 작은 계명을 지배하는 보다 큰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며(위의 질문과 같이) 미묘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해야 할 방법은 “그러한 경우에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행하셨을까”를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



사랑 그 자체가 보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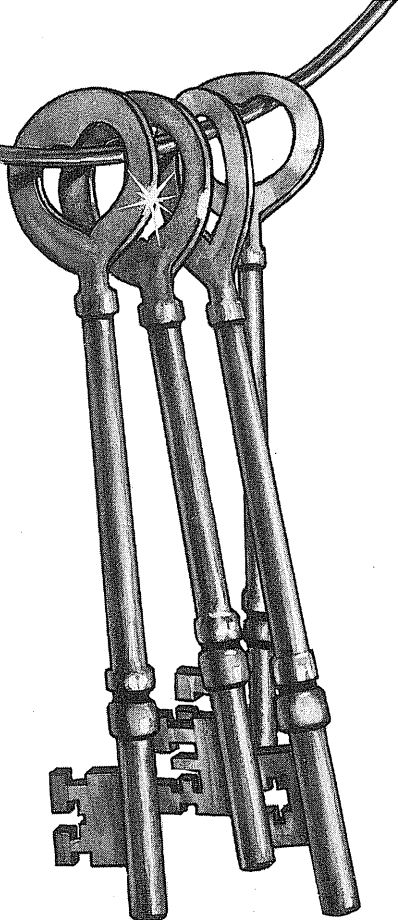
레이드 로버츠

주 : 이 이야기는 가족 계보 기록에 있는 실제의 사건을 이야기로 꾸민 것임.

크리스천 몬슨이 들고 있는 등에서 비치는 희미한 불빛은 프레드릭스 태드 감옥(놀웨이)의 회색 돌벽 위에 춤추는 것같은 어두운 그림자를 던졌다. 크리스천은 감옥 사무실에서 밀에 있는 감방으로 통하는 육중한 문에서 망설였다. 그의 심장은 몹시 뛰고 있었다. 그는 만약 두 명의 죄수를 탈옥시키려는 자기 계획이 발각되면 자기 자신도 이곳에 갇히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크리스천은 감옥 열쇠에서 차거운 감촉을 느꼈고 취소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한 중압감을 느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는 자물통에 열쇠를 꽂고는 옆으로 돌렸다. 철컹컹하는 금속성 소리가 났다. 나머지 손으로 문을 당겨 열었다. 감옥에서 나오는 죄수들의 땀냄새와 썩은 지하실의 악취가 뒤범벅이 되어 악취를 내뿜었다.

크리스천은 연이어 있는 감옥쪽의 돌계단을 걸어 내려간다. 야간 보초로서 이 감옥을 감시하는 임무가 그에게 맡겨져 있었던 것이다. 계단의 밑바닥에서 먼뽕 서서 벽에서 돌출되어 있는 고리에 등불을 걸었다. 빛이 그의 얼굴을 환하게 비쳤다. 그것은 밝은 푸른색의 눈을 하고 뺨뺨한 황갈색의 머리를 한 14세



된 키가 큰 놀웨이 소년을 비쳤다. 그의 얼굴은 호감을 주는 고운 얼굴이었으며 보통 때는 웃음과 장난기로 가득찬 모습이었으나 잠박거리는 등불 아래서 심각하게 굳어 있었다.

크리스천은 복도를 가로질러 왼쪽 끝의 감옥에 가서 자물통에 열쇠를 꽂고 문을 열었다.

“장로님!”하고 부르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문 옆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악한같이 보이는 두 사람에게 불빛이 비쳤다. 두 사람 다 텅수룩하게 수염이 자랐고 머리는 길었으며 기름과 때가 묻은 옷

을 입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고 붉은 상처가 나있었고 옷은 습기찬 공기에 부패되어서 더러운 누더기가 되어 있었다.

감옥에서 일하는 1년 동안에 크리스천은 이 두 사람처럼 누더기 옷을 입고 증오에 차서 차갑고 공허한 눈초리를 던지는 최악한 사람들을 많이 봤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달랐다. 그들의 의복, 머리, 피부는 다른 죄수와 다를 바 없었으나 크리스천이 다른 점을 발견한 것은 그들의 눈이었다. 이 두 사람의 눈은 따뜻하고 생기가 있으며 힘이 있었다.

헨선 장로는 미소를 띄고 그의 억센 손으로 크리스천의 어깨를 잡았다.

“크리스천씨,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당신의 용기를 기쁘게 생각하실 겁니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서둘러야 합니다.”라고 벨슨 장로가 감옥에서 나서면서 말했다. “그렇지만 먼저 기도합시다.” 몇 분 후에 크리스천과 두 물몬 선교사는 감옥 밖으로 걸어 나왔다. 키가 크고 새가슴인 헨선 장로가 멈춰 서서 팔을 뻗고는 차고 맑은 밤 공기를 길게 퉁퉁히 들며 마셨다.

그들은 걸으면서 속삭이는 음성으로 이야기했다. 이윽고 그들은 포르트(협만)의 바위 쪽을 향한 좁은 길을 걸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몬슨 형제, 부모님이 어떻게 하십니까?”라고 벨슨 장로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벨슨 장로님, 어머님께 말씀드릴려고 노력했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버지는...자존심이 강한 분이예요. 그는 놀웨이에 대하여 루터 교회에 대하여 자기 신앙에 대하여 긍지를 갖고 있어요. 어머니는 이해하시겠지만 아버지는 전혀 노력하려고 하지 않

을 거예요”라고 퉁퉁히 말했다.

크리스천은 멈춰서 벨슨 장로에게 얼굴을 돌렸다. 그가 숨쉴 때 어둠 속에서 하얀 입김이 보였다.

“벨슨 장로님, 진리를 전하는 데는 고통이 따르는 법입니다” 그는 몸을 돌려 다시 걷기 시작했다.

벨슨 장로는 고개를 끄덕이곤 추워서 외투를 더 단단히 당겼다. 그는 문체를 잘 알고 있었다. 헨선 장로와 그는 바로 이러한 종교상의 편협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다시 크리스천이 침묵을 깼다.

“옛날에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할아버지께서는 인생에는 나의 장래와 모든 후손들의 장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단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아무리 어렵게 보이더라도 내가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조심해서 각 단계를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옳다는 것을 알아요.”

그들은 해안선에 도착해서 작은 협곡에 도착할 때까지 해안선을 따라 걸었다. 그 해안선은 바위가 많았으며 바다와 해초 냄새가 났다.

세 사람은 물 속으로 들어갔다. 물은 밤 공기에 비하면 따뜻하게 느껴졌다. 해변의 바위를 때리는 파도 소리가 들렸다.

크리스천은 지난 두달동안 성경을 가지고 자기 교회의 교리 문답과 두 장로의 가르침을 비교하고 연구한 긴 시간을 회상했다.

자기가 찾고 기도했던 그 응답을 받았을 때 마음속 깊이 느꼈던 따뜻함을 생각했다. 그 기억과 함께 그의 마음속에 느끼는 평화는 이 결정에 따르는 중압감의 고통을 무마시켜 주었다.

달빛 아래에서 헌선 장로가 팔을 수직으로 들어 올렸다. 크리스천은 마음의 눈으로 요단강에서의 침례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헌선 장로의 음성과 침례 기도를 들었다. 그는 그 기도의 권세를 느꼈으며 그가 갑자기 물에 잠기는 것을 느꼈다.

아침에 지평선이 황적색으로 변하기 전에 두 장로는 자기 감옥으로 돌아갔고 크리스천은 주찬 보초가 교대하러 오기를 기다리면서 감옥의 정면에 있는 사무실의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아침의 중요한 정적 속에서 자신이 택한 이 단계가 자기를 어디로 인도할 것이며 자기 부모에게 어떻게 말할까하고 생각했다.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그는 비밀을 지킬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루터 교회에서 같은 연령의 사람들과 함께 긴 의자 끝에 앉아 있는 것이다. 어머니와 아버지도 교회 중앙의 앞줄에 앉아 있었는데 거기는 확인받는 소년의 부모를 위한 명예로운 자리였다. 루터 교회의 회원은 14살이 되면 완전한 회원이 될 준비를 갖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확인받는 날에 확인 대상자들은 청중의 앞에 나가서, 목사가 묻는 루터교 교리 문답에 대답하게 되어 있다. 크리스천은 자기 신앙에 관하여 거짓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그의 차례가 되었다. 그는 긴 의자에서 일어나 목사에게 갔다. 아버지는 자부심을 갖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크리스천은 다리가 떨리고 당황해서 마음이 어지러웠다. 교회에는 사람들이

꽤 차 있었으며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목사의 음성은 크게 교회 안에 메아리쳤다.

“그대는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단조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예,”라고 대답하는 크리스천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속삭이는 음성으로 기도했다.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겠는가?”

커다란 건물에는 쥐죽은 듯이 조용한 침묵이 깔렸다. 크리스천은 전 세계가 자기를 주목하고 귀기울여 듣는 것 같았다. 그때, 그의 내부로부터 확신과 힘이 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강력하고 분명했다.

“하나님은 육체도 없고 지체도 없고 감정도 없는 분이 아닙니다. 또한 그는 무한히 높은 보좌의 꼭대기에 앉아 계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친절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의식을 행하는 가운데 처음으로 목사를 쳐다보았는데 그의 눈은 둥그랬다. 크리스천은 몸을 돌려서 아버지를 쳐다 봤다. 그는 돌처럼 굳어진 표정을 짓고 있었다.

목사는 계속해서 질문했고 크리스천은 자기의 새로운 신앙에 따라 대답했다.

목사는 이 변질된 교리 문답을 끝내고는 엄한 표정으로 크리스천을 바라보면서 꾸짖는 듯한 목소리로 “마치 너는 물론인 것처럼 대답하는구나”라고 말했다.

“제가 그렇게 대답하고 있다면 저는 거기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합니

다.”라고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크리스천의 아버지 한스 몬슨이 벌떡 일어섰다. 그는 노여운 표정으로 크리스천을 쳐다보고는 오우크 지팡이로 마룻바닥을 팽하고 내려치고는 돌아서서 요란하게 지팡이로 마룻바닥을 두들기면서 건물에서 나갔다.

그날 밤 크리스천은 아버지로부터 매를 맞았는데 며칠동안 그 매가 계속되었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도움으로 며칠동안 아버지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가 집안으로 나무를 운반하여 벽난로 근처에 쌓고 있을 때 아버지가 방에 들어왔다.

그 순간 무서운 침묵이 깔렸다. 갑자기 체격이 건장한 벌목꾼인 한스 몬슨이 지팡이로 소년을 때렸다. 크리스천은 그 뒤에 내려치는 매를 대부분 피했으나 지팡이에 맞을 때마다 그의 몸에 고통스러운 채찍 자국이 생겼다.

한스 몬슨은 숨을 헐떡이며 멈췄는데 근육이 잔뜩 긴장되고 곱슬곱슬한 머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크리스천은 험기증을 느끼며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아버지,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은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알아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제가 행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알아요. 또한 참된 진리인 복음을 위해서 두들겨 맞는 것은 두렵지 않아요.”

한스는 잔뜩 숨을 들이쉬고는 벽난로 장작을 쌓아 둔 데서 커다란 나무를 하나 집어서 던졌다. 그는 그 나무 더미가 다 없어질 때까지 크리스천에게 던졌다. 그리고는 문을 열고 크리스천에게 나가라고 명령했다.

“여기에는 물론 마귀가 거할 방이 없어”라고 크리스천의 등에 대고 소리쳤다. 문이 팽하고 닫혔다. 그것이 크리스천이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었다.

밤 공기는 몹시 추웠다. 크리스천은 고통과 당혹과 비참한 상실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아직도 아버지에게 대한 사랑과 존경을 갖고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광으로 가서 귀리 짚더미 위에 쓰러졌다.

밤이 늦어서 크리스천은 부드러운 손질이 자기 어깨를 감싸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가 그의 곁에 앉아 있었다.

“왜 그랬니? 크리스천, 왜 너는 그렇게 해야 하니?” 라고 어머니는 울음섞인 목소리로 묻는 것이었다.

“저는 복음에 대하여 공부하고 기도했어요. 저는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아요” 라고 대답하면서 자기 자신의 말에서 힘을 느꼈다. “저는 어머니에게 말씀드리려고 했으나 어머니는 들으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저는 옳다고 아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 구세주인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과 같아요. 저는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छ고 곱광이 냄새가 나는 어두운 헛간에서 그들은 새벽의 희미한 빛이 스며들 때까지 이야기했다. 크리스천은 자기와 어머니 사이를 전보다 더 강하게 연결시켜 주는 따뜻한 결속감을 느꼈다. 그리하여 그 추억은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 그를 따뜻하게 감싸 주고 힘을 주었다. 희생의 칙칙한 빛 속에서 그는 어머니의 얼굴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았다. 그녀는 자기 아들을 적어도 이 생애에 있어서는 다시 볼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아들을 힘껏 따뜻하게 껴안았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서서 집안으로 들어갔다. 크리스천은 어머니가 갖다 준 음식 보따리를 들고 드라먼시를 향하여 걷기 시작했다. 거기에 다른 물몬들이 있다고 그 장로들이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가벼운 싸릿눈이 조용히 길 위에 떨어지고 있었다.

몇 주를 걷고 나서 크리스천은 돈이 다 떨어졌으므로 음식을 구걸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밤이면 숲속에서 쓰러진 나무에 기대서 웅크리고는 외투의 깃을 단단히 잡아 당기고 추위속에서 잤다. 그는 이전에는 이렇게 외롭고 춥게 느껴본 적이 없었다. 굶주림보다도 그의 내부에서의 외로움이 더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결국 그는 드라먼시에 도착했으나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고 일자리도 구하지 못했으며 물몬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또한 물몬을 찾도록 도와 주려고 하지도 않았다. 며칠동안 그는 방황하며 문을 두드리고 일자리를 찾고 길을 물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두운 절망감이 엄습해왔다.

어느 날 밤 그가 점점 심해지는 폭설을 피할 장소를 찾고 있는 동안 드라먼시 바깥의 숲가에 있는 작은 통나무 집을 보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집을 더 두드려 보기로 결정했다. 그는 문을 열고 나온 여자에게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미소를 지으며 지금 남편이 집에 없으므로 나중에 다시 와서 남편에게 이야기하라고 말했다. 그녀는 빵 몇 개와 치즈를 주었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고 인사를 한 다음 돌아서서 숲속으로 들어갔다. 차츰 어둠이 깔리는 속에서 그는 눈 덮인 솔 더미에 우묵한 곳이 있는 것을 발견하

고 그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코와 손은 추위에 얼어 있었고 그는 희망을 잃고 있었다.

그 여자는 그에게 인자하신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나게 했다. 그는 집이 그리웠다. 졸음 때문에 그는 의식이 몽롱해짐을 느꼈다. 그는 그것이 추위 때문이며 자기가 잠이 들면 그대로 얼어죽는다는 것을 알았다. 얼마동안 그는 절망에 사로잡혀서 편안하고 따뜻한 잠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때 할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났다.

“인생에는 나의 장래와 모든 후손들의 장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단계가 있다. 아무리 어렵게 보이더라도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조심해서 각 단계를 취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크리스천은 그 피난처로부터 기어 나왔다. 심하게 눈이 내리고 있었다.

“정말 그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나를 도와 주실거야. 나는 아버지께서 도와 주실 것을 알고 있어.” 라고 소리쳤다.

크리스천은 신선한 눈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어둠속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어떤 사람이 보고 귀를 기울였다. 크리스천이 기도를 끝내고 일어 섰을 때 그 사람이 다가왔다.

그는 모우빈 홀베드트빈이라는 키가 큰 사람이었으며 그는 연약한 소년을 보고 서 있었다.

“나는 홀베드트빈 형제야. 나도 물몬이지.”라고 말했다. 그는 여인이 크리스천에게 빵과 치즈를 주었던 바로 그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 집은 따뜻했다.

홀베드트빈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었으

므로 크리스천을 아들로 삼기로 했다. 모우인은 목수이자 금고 제작자였다. 그는 크리스천에게 자기 사업을 가르쳤다.

크리스천이 19살이 되었을 때 그는 미국 곧 시온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홀베르트빈 금고 상회에서 일하며 수년 동안에 여행하기에 충분한 돈을 저축했다. 1887년 봄에 키가 크고 잘생긴 크리스천 몬슨이 몇 년 전에 외롭게 죽어가는 자기를 구해 준 두 사람의 양부모에게 작별을 고했다.

“제가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라고 말했다. 그는 양부모가 여행을 위하여 준 튼튼한 새옷과 선물로 가득 찬 커다란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사랑 그 자체가 보상이란다, 크리스천”이라고 홀베르트빈 자매가 말했다. 미소짓고 있는 그녀의 얼굴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크리스천은 자기 눈물을 감추기 위하여 돌아서서 배로 올라갔다.

“편지 해”라고 소리치는 그녀의 음성을 들었다. 그는 돌아서서 한번 더 쳐다보았다. 남편 옆에서 있는 키가 크고 건장하며 품위있는 그녀를 보았다. 그는 자신의 중요한 부분을 거기 세워 두고 떠나는 것 같았다. 그는 자기가 친부모만큼이나 그들을 사랑했으나 자신이 취하는 단계가 옳음을 알고 그렇게 했다.

몇 년 후에 노르웨이 오슬로의 번두리에 사는 키가 크고 머리를 잘 다듬은 옷토몬슨은 자기의 목적지인 위엄있는 대저택을 볼 수 있었다. 그 날은 기분 좋게 따뜻했으며 밖에 나가기 좋게 느껴졌다.

반 시간 후에 옷토에 있는 대저택까지 걸어가는 시간은 자신에게 허용된 시간보다 훨씬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늦지 않기 위하여 그는 간선 도로를

떠나 그 도시의 빈민지에 있는 좁고 복잡한 뒷길을 가로질러 갔다. 그 대저택 가까운 곳에서 그는 외딴 집이 죽 늘어 서 있는 곳에 이르렀다.

선교사들이 노르웨이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선교부의 규칙이었으므로 옷토가 영어로 이야기 하는 것을 못들은지 1년이 지났다. 그가 그 작은 집 근처를 지나갈 때 영어로 명령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 집에 들어가라”라고 명령했다.

옷토는 약간 얼굴이 창백해져서 발걸음을 멈췄다.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길에는 아무도 다니지 않았다. 왜 이곳에 들어왔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 썩어가는 판자집 안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둘러보고는 계속해서 걸었다. 걷고 있으니까 음성이 작지만 강하게 들렸다.

“그 집에 들어가라.”

난 다른 약속이 있는데라고 생각했다. 오슬로에서 가장 부유하고 학식이 있으며 영향력이 있는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틀 전에 그 사람이 노르웨이 선교부장인 크리스토퍼슨 선교부장을 만나서 누가 자기에게 와서 말일성도 교리의 원리를 설명해 줄 수 있겠는지 물었던 것이다. 선교부 사무실 서기였던 옷토는 크리스토퍼슨 선교부장이 자기더러 가라고 했을 때 자신감을 느꼈던 것이다. 지금 어떻게 주저할 수 있단 말인가? 늦어서는 안되지.

“그 집으로 들어가라.”고 그 목소리는 반복해서 명령했다.

옷토가 그 대저택의 정문 앞에 섰을 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멈추어 몸을 돌렸다. 내가 미쳤는 모양이지라고 생각했

다. 그리고는 그는 판자집으로 향했다. 이 안에는 아무도 살지 않을 텐데.

그는 그 판자집의 문을 두들겼다. 집안으로부터 발을 질질 끄는 소리와 판자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의 피부에는 경련이 일고 있었다. 문이 가죽 돌쩌귀에 닫혀있는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아주 창백한 할머니가 나왔다. 그 할머니로부터 병과 노쇠로 말미암아 냄새가 났으며 그는 그 할머니의 외모를 보고 죽음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 할머니는 그를 쳐다보고 약간 고통스럽게 미소를 띄었다. 그는 그 할머니에게서 무서운 외로움을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 외로움이 아주 깊숙히 고통스럽게 파고들었으므로 그는 몸을 돌려서 그녀의 따뜻한 갈색눈의 시선으로부터 피하고 싶었다.

“무슨 일이신가요?”라고 그 할머니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으나 유쾌한 음성이었다.

웃토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다.

“저는 미국에서 왔읍니다.”라고 말했다. 그가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전부였다.

“나는 옛날에 미국으로 간 소년을 알고 있지.”라고 그녀가 말했다.

“그 사람은 이름이 무엇이지요?”라고 공손하게 물으면서 웃토는 내가 지금 다른 중요한 약속 시간에 지각하고 있으면서 뭘하고 있나라고 생각했다. 그는 할머니에게 제가 실수해서 집을 잘못 찾았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 할머니는 따뜻한 눈초리로 먼 옛날을 회상하면서 말했다. “그의 이름은 크리스천이었지. 크리스천 몬슨이야. 그러나 그것은 거의 50년 전이었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웃토는 자기 몸에 불붙는 듯한 흥분이 소용돌이치는 것을 느꼈다. 숨쉴 틈도 없이 그는 할머니의 이름을 물었다. 그렐리는 없어, 그렇게 수십년이 지난 지금 그렐리는 없어라고 생각했다.

“나의 이름은 홀베드트빈이야!”라고 그녀가 대답했다.

웃토는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 또한 자기 뺨에 따뜻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저가 웃토 몬슨이예요, 크리스천 몬슨은 저의 아버지이며 저는 앤 홀베드트빈 할머니를 매우 잘 알아요.”

거리는 조용했다. 웃토에게는 시간이 고요히 정지해 있는 것 같았다. 그때 갑자기 할머니의 앙상한 팔이 자기를 껴안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가 흐느껴우는 소리를 들었고 그 무서운 외로움이 그녀에게서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크리스천이 미국으로 떠난지 얼마 되지 않아서 홀베드트빈 부부가 드라마에서 오슬로로 이사했다는 것을 뒤에 그 할머니로부터 들었다. 크리스천이 미국에서 보낸 편지는 그들에게 배달되지 못했다. 이사한 후 5년이 지나서 모우인 홀베드트빈은 병에 걸려서 죽었다. 그때부터 그의 할머니는 혼자 남게 되고 지난 몇년 동안 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생계비를 벌 수 없었다. 할머니는 외롭게 죽을 것이 두려워서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말했다.

웃토는 그 할머니를 종종 방문해서 그녀가 간호받고 좋은 집에서 살며 좋은 음식과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을 보았다. 몇달 후에 그 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외롭게 혹은 사랑받지 못하고 돌아가시지는 않았다.

*



허구적인 이야기가 실현되다

마거렐 쿠블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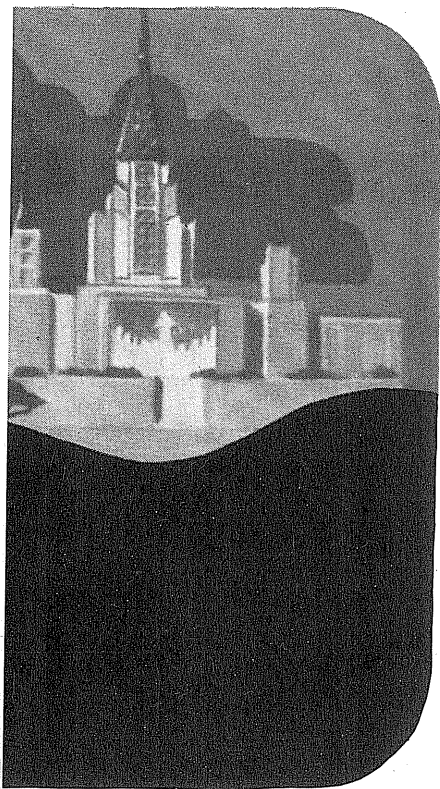
나는 독일의 서 베를린에서 1년간 공부를 한 후 성탄절 휴가를 맞아 집으로 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 내가 그와 같이 교회에 간다면 나를 데리러 비행장까지 나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모임이 격식을 차리지 않는 것을 보고 저이기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촛불도 없고 예복도 없고 성가도 없었습니다. 그 모임은 마치 옛날의 시민 대회 같았습니다. 그것은 몹시 나의 흥미를 끄는 것이었습니다.

비행장으로 가는 도중에 켈리포니아의

오كل랜드를 지나가게 되어서 물론 신전이 있는 언덕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 날은 비바람이 치는 날이었으나 그 신전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밝게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방문자 센터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내가 다시 서 베를린에 갔을 때 가장 가까운 지부에 나가게 되었으며 두 젊은 선교사가 나에게 복음 토론을 드렸습니다. 나는 이 토론이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성경이 허구로 가득차 있고 소위 기



다. 우리는 시골의 생활에서 주어지는 유익을 마음껏 즐기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수개월이 지났지만 사실상 선교사가 전해 준 메시지를 잊은 적은 결코 없었으며 나의 양심은 가끔 나의 생활방식의 그릇됨을 일깨워 주곤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아주 색다른 나라로서 나는 이 나라의 풍부한 역사에 대하여 깊이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잠란산 꼭대기에서 나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쩐지 성경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여겨졌으며 처음으로 그것이 실재적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믿기 시작한 장소는 가끔 새가 날개를 퍼덕이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고요하고 장엄한 시나이 사막이었습니다.

가을이 다가오자 이 교회의 메시지가 참되며 그 프로그램은 신성한 영감을 받은 것이라는 지식이 나의 내부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내 자신이 이 교회의 이상과 지도자와 지혜의 말씀에 응호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성탄절에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교회의 진실한 구도자가 되려고 하면서 한편 나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내가 물론으로 개종했음을 알면 어떻게 될까라고 상상해 봤습니다. 두명의 아름다운 자매 선교사가 다시 복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토론은 진실된 것이었습니다. 나의 옛 친구는 나를 돕고 질문에 대답하려 했고 특히 내가 진리를 알도록 격려하려고 했습니다. 4주일 후에 그는 나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을 대하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진실로 나는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 내가 올바른 것을 행하고 있다는 불변의 확신으로부터 용기를 얻었습니다. *

독교인들은 역사적으로 너무 많은 증오를 샀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몇몇 모임에 참석하고 거기서 따뜻함을 느꼈으나 나의 “진정한” 친구는 무신론자였으며 그들은 인간의 능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재성을 믿으려는 나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나는 아직 친구들을 따르는 강한 욕망이 있었으므로 영적인 면에 대해서는 크게 열의를 갖지 못했습니다. 곧 나는 그런 갈등에 싫증이 나서 나는 다시 친구들과 맥주를 마시고 정치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모험을 즐기는 나는 친구 한명과 함께 이스라엘에 가서 키부츠(이스라엘의 집단 농장)에 대하여 연구하기로 했습니

종교, 반항, 레벡카

이 디 델포드



나는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립 도서관은 벌집을 쭈서 놓은 것처럼 소란했습니다. 나는 짜증이 나서 내가 왜 조용하고 집중이 잘되는 대학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고 여기에 와 있는가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녀는 도서관의 보조 직원이었으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였습니다. 그녀의 명찰을 보고 버튼양이라는 것을 알았으나 내가 그녀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지난 삼일 밤을 단지 그녀의 이름을 알 기회를 얻으려고 내가 이리 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그녀는 “쉘, 여기는 도서관이에요.”라든가 “안녕하세요”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저녁에는 어제보다 나아지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왔습니다. 책을 펼치기는 했으나 공부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미국 역사책을 펼쳐놓고 팔짱을 끼고 앉아서 버튼양이 자기 책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가끔 그녀는 슬며시 내가 있는 쪽

으로 시선을 던지곤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미소를 띄우고 그녀에게 윙크를 했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감추려고 얼른 머리를 숙이곤 했는데 어쨌든 그녀는 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에 감탄했으며 또한 그녀의 겸손함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나의 친구들의 전형적인 복장인 색이 바랜 청바지와 단정치 못한 블라우스를 입지 않고 버튼양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옷은 무릎까지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화장도 질게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가까이서 보지 않으면 화장을 했는지조차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은 베일처럼 머리와 어깨를 장식했습니다. 그녀의 복장, 행동, 외모 등은 그녀가 숙녀라는 것을 알려 주었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이끌리게 된 것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녀와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왔으며 수염도 상당히 자랐습니다. 나는 색이 바랜 낡은 청바지와 수놓은 셔츠와 낡은 샌들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반역의 왕같이 보였고 그녀는 미덕과 복종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나의 생활 방식을 택했고 그녀는 그녀 자신의 생활 방식을 택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차이는 넘을 수 없는 장벽 같았습니다. 그 장벽을 뚫기 위해서는 머리를 깎고 사회 규범에 복종해야 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안돼, 비록 그때뿐이라 하더라도 다시 양복과 벵타이를 착용하고 싶지는 않아!

언필이 내 손 안에서 부러졌습니다. 왜 내가 안전한 도서관 직원때문에 이



렇게 동요되는 것일까? 그것은 그녀의 눈과 미소와 본질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나를 깊이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게 버튼양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녀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나의 생활 방식에 적응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녀가 가까운 서가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는 동안 그녀가 어수선한 머리를 하고 있는 것을 상상해 보려고 했으나 부질없는 일이었습니다. 버튼양보다는 차라리 모나리자가 거기에 더 잘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책장리를 끝내고 자기 책상쪽으로 달려고 돌아 섰습니다. 그녀의 눈이 나와 마주쳤습니다. 천천히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가 내 걸을 지나갈 때 나는 의자를 위로 밀어내고 193센티미터가 되는 나의 몸을 똑바로 세웠습니다. 나는 부동자세를 하고 꽤 큰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속삭이는 목소리였지만 도서실을 울리게 할 만큼 크게 들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타는 듯이 붉어졌습니다. 도서실 전체에 웃음 소리가 퍼져 나갔고 나는 만면에 미소를 띠고 앉았습니다.

버튼양이 자기 책상으로 돌아가서 얼마 안되어 주근깨가 깔린 13세 정도된 소녀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버튼양이 그 소녀의 눈을 들여다 보며 그녀의 토실토실한 손위에 자신의 가느다란 손을 얹은 것을 보면 보통으로 하는 “그 책이 어디에 있지요?”라는 질문을 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반항이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 책상 근처에 있는 탁

자로 앉습니다. 나는 버튼양이 그 주제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잡지를 읽는 체하고 듣고는 플라스틱 의자에 가능한 한 길게 등을 기댔습니다. 나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년에 고등학교에 가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행동할지를 알도록 반항에 관한 책이 필요해요.”

나는 웃기 시작했으나 버튼양은 진지한 태도로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네가 반항하지 않는다면 균중가운데서 저항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말이지?”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누나처럼 반항해요. 누나는 대통령이 대학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을 합법화시켜 주지 않는다고 오늘 저녁 데모에 나가요. 우리 오빠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머리를 깎으라고 늘 호통을 쳐도 깎으려고 하지 않아요. 저기있는 저 청년처럼 머리가 자랐는데도요”

나는 그 소녀가 나를 가르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계속해서 “우리 아버지는 파업에 들어갔고 어머니는 언제나 여권신장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어요. 그것은 반항하는 것이지요?”

버튼양의 고운 이마 위에 근심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깊이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반항할 때 우리는 이기적이 되는 거야.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 방법대로 되길 바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반대하면 우리는 반항하지. 그것은 마치 울화통을 터뜨리는 것과 같아. 우리는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이는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야.”

“올바른 것을 행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해 이것을 기억해. 비겁한 사람들은 반항하고 용감한 사람은 법률을 지키고 의로운 것을 행하는 거야. 그러나 어떤 것이 틀렸을 경우에 그들은 틀린 것에 대하여 크게 외칠 용기를 갖고 있는 거야” 나는 화가 났습니다. 나는 내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여자로부터 직접 공격을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로 감정을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귀를 기울였고 아마 그녀는 비겁한 사람이 반항한다는 말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철회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어린 소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렇지만 조지 워싱턴과 토마스 제퍼슨이 비겁한 사람이었나요? 그들은 영국에 대항하여 반항했잖아요?”

“아니야 그들은 비겁한 사람이 아니었고 영국에 대항하여 반항하지 않았어. 대영제국은 미국에 있는 새로운 이주민들에게 부당하게 대했어. 영국은 그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했으나 그들에게 정부에서 발언할 권리를 주려고 하지 않았어. 영국이 그들에게 공정하게 대했다면 미국 독립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거야.”

이번에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나는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나는 내가 길게 다리를 뻗고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기 때문에 책과 함께 마루에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버튼양과 도서관에 있던 사람들의 절반 가량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다쳤어요?”라고 그녀는 재빨리 내가 넘어진 지역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조금 충격을 받았을 뿐입니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넘어진 의자에서 다리를 빼내는 동안 버튼양은 사람들을 모두 제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거기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한 말이 당신을 놀라게 했나요?”라고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렇지요!”라고 나는 약간 통명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화내게 하지 않나 하고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좀더 부드럽게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튼양, 당신은 반항에 대하여 좀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군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내가 계속해서 말하라는 듯 했음



니다.

“나는 어떻게 반항하는 사람들이 비겁자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당신은 미국의 선조들이 영국에 반항하지 않았다고 말하는군요. 도서관 직원이 말입니다.” 나는 의식적으로 더 이상 말하는 것을 삼가했습니다.

“화나게 했다면 미안해요”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때 워싱턴 어빙이 쓴 소설의 작중 인물과 같이 깡마른 피상한 풍채를 한 사람이 우리가 있는 곳으로 걸어왔습니다.

“저 분이 도서관장이예요”라고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나의 팔을 짚고 이 말을 한 후에 재빨리 자기 책상으로 가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앉아 있는 것이 고통스러웠으나 도서관이 닫힌 후에 버튼양과 이야기하

고 싶어하는 생각 때문에 나의 아픈 상처를 잊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한말을 반복해서 생각했습니다.

“비겁한 사람이 반항한다. 용감한 사람은 법률을 따른다...”

그것은 틀려! 라고 나는 주장했습니다. 남보다 특이하고 사회의 전통에 반항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한 거야! 비겁한 사람은 감히 “긴 머리”를 할 수 없고 행정 관서를 습격할 수 없는거야!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서는 것은 용기가 있어야 해!

나의 마음 속에 원하지 않았던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맨, 너는 무엇을 믿지?”

“자유”라고 나는 반박했습니다.

다시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었습니다. “법률과 의무와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말인가?”

나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나는 이 질문에 대하여 마음속으로부터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반항함으로써 용기를 보인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쉬운 탈출구를 찾았던 것입니다. 가정과 종교는 너무나 엄격했습니다. 나는 의무나 책임이 없는 가운데 즐기고 마음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얼마나 당황케 했으며 어머니를 우시게 했던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괴롭힌 자신이 미웠으나 아직도 친구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보다는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것이 더 참기 쉬웠습니다. 나는 점점 더 가족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행동했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진정으로 커다란 괴로움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비겁한 사람들어 반항한다! 그게



옳은 말일까?”라고 나는 큰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면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나는 마치 피곤한 나의 어깨에서 무거운 멍에가 벗겨져 나가는 것같이 느꼈습니다. 몇 년만에 처음으로 나는 정말로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나는 누가 옆에 온 것을 알고 돌아봤습니다. 거기에는 버튼양이 밝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자신과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 같군요.”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차로 백까지 모셔다 드릴까요?”라고 내가 물었습니다.

“우리 집은 여기서 가까와요. 그래서 걸어다니지요.” “...음 그렇지만 도보로 집까지 바래다 주신다면...”

나는 즉시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길을 우리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결국 내가 말을 꺼냈습니다. “버튼양, 당신에게도 이름이 있겠지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도서관에서 일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레벡카라고 불렀어요.”

“벡키 버튼이라. 그것 참 예쁜 이름이군요!”

“벡키가 아니고 레벡카예요.” 그리곤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야기의 실마리를 잡으려는 듯이 그녀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레벡카(리브가)는 성경에서 이삭의 아내였어요. 기억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이름이 무엇이죠?”

“앤입니다.”

“다니엘도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성경을 읽으신 적이 있어요?”라고 그녀가 물었습니다.

“옛날에 조금 읽었습니다.” 나는 오늘 저녁에 성경에 대해서 토론할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앤, 난 말이에요. 만약에 도서관에 불이 난다면 무엇보다도 성경을 제일 먼저 꺼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그녀의 눈동자는 빛났습니다. 그녀의 생애 있어서 종교는 아주 중요한 요소임이 틀림없었습니다.

내가 그녀의 말에 동조하지 않을 것 같을 눈치채고 그녀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지금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리고는 어린이같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기독교인이세요?”

그녀의 질문은 나의 과거에 대한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 문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주의깊게 감춰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추억과 깊은 느낌이 응답했습니다.

그날은 찌는 듯이 더웠습니다. 나의 누이 수지와 나는 교회 밖에서 아버지가 우리를 팔프 시험에 데려가 주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의 등에는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수지의 금발 곱슬머리는 젖어서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나의 친구들이 부모들과 함께 교회를 떠나는 것을 부럽게 쳐다보던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우리 부모님이 함께 교회에 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언제나 바쁘거나 너무 피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데리고 가실 때 우

리는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게 노여움을 가졌습니다.

여섯 때와 마찬가지로 어머니는 집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으나 나는 아직도 마음 속에 노여움은 가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시금치를 싫어했기 때문에 전혀 손대지 않고 접시를 수지에게 넘겼습니다. 즉시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넌, 시금치를 좀 먹어라. 시금치가 몸에 좋단다.”

나는 자제심을 잃고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왜 아버지와 어머니는 교회에 다니시지 않나요. 시금치가 나에게 좋은 것처럼 교회에 다니시는 것이 아버지와 어머니께 좋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나를 때렸고 어머니는 울면서 식탁을 떠났습니다. 나는 화가나서 집을 뛰쳐 나왔습니다.

“레벡카, 내가 기독교인이냐고요?” 나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반문했습니다.

“클쎄 옛날에는 그랬다고 해 둥시다.”

그녀는 날 조용히 놓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가로수가 늘어선 어두운 거리를 걸었습니다. 우리 발 밑에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칙묵을 깨뜨릴 따름이었습니다. 나는 춥고 어두운 세상에 나홀로 서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레벡카의 따뜻한 우정을 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 대하여 아주 확신을 갖고 있고 평화로운 것같이 보였습니다. 나는 그녀의 힘을 빌고 싶었고 그녀의 지혜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따뜻한 눈길을 마주 보

기가 두려워서 땅을 보며 걸었습니다.

나는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레벡카, 당신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녀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아주 신앙이 깊은 여성이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종교가 그녀로 하여금 그렇게 예민하고 부드럽고 사려깊은 사람이 되게 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레벡카, 어느 교회에 나가십니까? 천주교입니까, 신교입니까, 또는 그 외에 어떤 다른 교회입니까?”

그녀의 입술에 약간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넌, 나는 당신이 말한 그 이외에 어떤 다른 교회에 속해요. 나는 내가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진리를 찾고 있어요. 나는 진리를 좀 특이한 곳에서 찾아요. 그러나 나는 한 가지만은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모든 진리를 갖고 있는 그러한 교회가 있나요?”

그녀의 질문이 나에게 깊은 자극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애원하는 것같은 눈초리로 나의 눈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나의 과거가 내 앞에 환하게 나타났습니다. 조용히 나는 고개를 숙이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수년 동안 기도하지 않았었습니다. 한참 후에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이야기 하기 시작했습니다. “레벡카, 물론 교회에 대해서 좀 알고 있나요?”

*

하나님의 면전에서

조셉 에프 스미스

나는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
는 동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
서 형제 자매 여러분께서 훌륭한 느낌과
신앙과 호의를 갖기를 기원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말씀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나
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
회가 조직된지 86주년을 맞는 이 대회
의 개회 모임에 참석한 수많은 사람들
을 보고 또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도와 영감을
받아 그분의 권세에 의해서 이 말일
의 사업을 시작한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그의 동료들이 지금 내가 이 태버나클
에서 보고 있는 광경을 볼 수 있다면 정
말로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을
모두 보시는 것처럼 그분도 우리를 내리
다 볼 특권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는 인간의 자녀들의 구원과 승영을 위
하여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업의 기초
를 놓기 위하여 또한 이 경륜의 시대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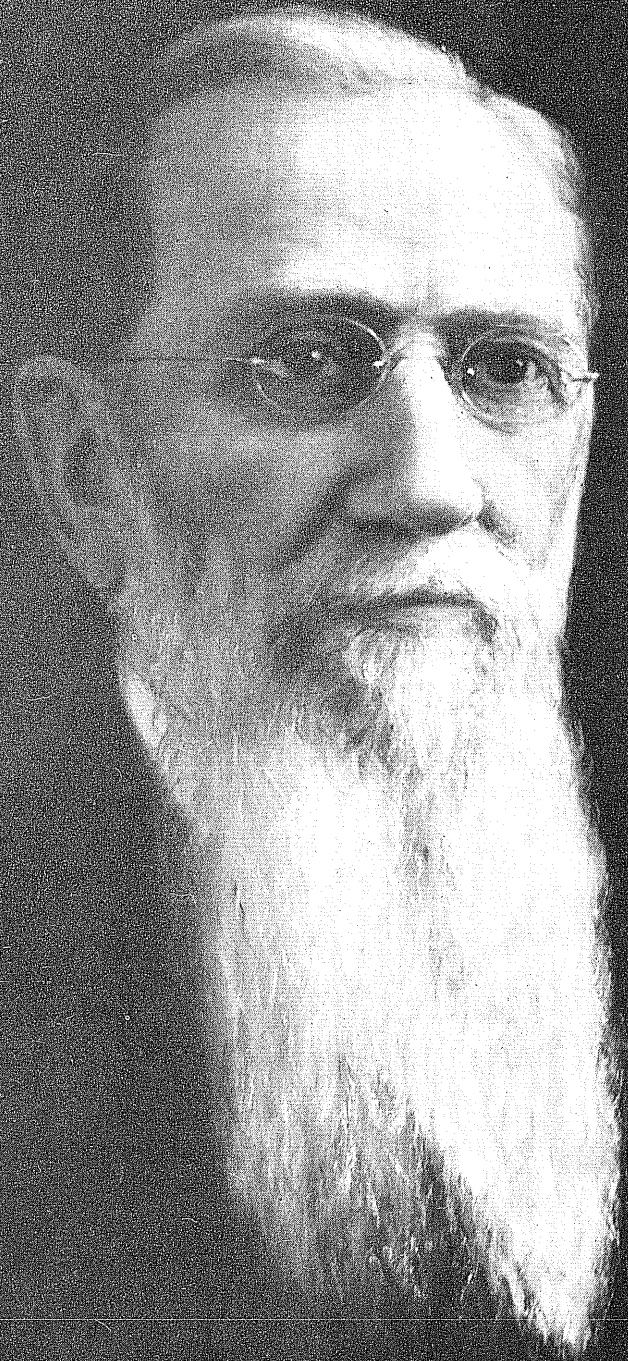
이전의 경륜의 시대에 택함받은 사람들
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꾀에서 구
속하고 개심시키도록 돕기 위하여 하나
님의 지혜와 목적에 의하여 자신에게 위
임된 수고와 노력과 사명의 결과를 영의
세계에서 내려다 볼 수 없게 되지는 않
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자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지켜보심

따라서 나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이
경륜의 시대의 순교자들, 브리감 영, 존
테일러, 윌포드 우드럽 및 세상에 성역
을 펴는 데 있어서 그들의 동료였던 충
실한 사람들은 그들이 이 지상에 계실
때 노력하고 헌신했던 하나님의 왕국의
유익을 주의깊게 지켜보실 것이라고 확
신합니다. 나는 그들이 육체로 존재할
때보다 지금 장막 저쪽에서 더 큰 능력
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더 큰 관심을
갖고 오늘날 우리의 복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시현

나는 다음과 같은 것에 대하여 하나



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창조주이며 아버지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유일한 독생자이신 세상의 구세주의 면전에 서 있다는 것, 또한 내가 베드로와 야곱의 면전(아마 요한도 우리를 보고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모릅니다.)에 서 있으며 또한 요셉 스미스, 하이라프 스미스, 브리감 영, 존 테일러, 윌포드 우드럽, 로렌조 스노우 및 이전에 세상을 떠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함에 있어서 용감하고 세상에서 자기의 사명에 대하여 충실했던 사람들 앞에서 있는 것을 인식하고 거기에서 내가 소유하고 즐기는 이 느낌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그들의 모범을 따랐으며 그들이 중

니다. 나는 지금 나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그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의 사명과 의무는 받아들이고 복종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권세로써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또한 나의 형제들에게 내가 살아 계신 하나님, 육체적으로 유일한 독생자를 낳으신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나의 의무입니다. 그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분의 성품을 따라 자랐으며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갔으므로 한번은 “나를 본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고 선포하시기에 이르렀습니다.

←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

나는 하나님이 단지 영에 지나지 않으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무한한 우주를 가득 채우며 어디서나 존재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무한한 우주를 채우고 동시에 모든 곳에 존재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개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한 개체로서 동시에 두 장소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모순되고 불합리한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능력은 무한한 우주 전체에 미칩니다. 그분의 능력은 모든 피조물에 미치며 그분의 지식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며 그 모두를 아십니다.

사했던 사명을 그들이 살아 있다면 행했을 그대로 수행했으며, 그들이 살아 있을 때처럼 나에게 위임되어 내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의무를 수행하는 데 충실했다는 생각을 갖고 그들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그들을 만날 때 나는 그들을 여기서 사랑과 조화와 일치 가운데서 그들이 자기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나도 내 의무를 다했다는 확신을 갖고 만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지금 내가 갖는 감정에 대하여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면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거룩한 천사의 면전에 섰다고 느낀다면 특별한 감정을 갖겠지요? 아마 더 특별한 감정을 갖고 예민해 질 것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라는 말은 경전에 나오는 진리의 말씀

입니다. (요 17:3 참조) 나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음성을 통하여 말일성도들은 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고 하나님과 그가 세상에 보내신 아들을 알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단지 그 지식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지키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며 모든 면에서 그분이 요구하시는 대로 복종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행하는 모든 의식을 받아들이고 지상에 있는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면전에 다시 돌아갈 자질을 갖추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의해 만들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위하여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충실히 순종함으로써 그 지식을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구원과 영생의 은사가 있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하나님에 대하여 훨씬 더 많이 압니다. 아침의 아들 루시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압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는 그 지식이 영생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면서도 항거하고, 순종하지 않으며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대로 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는 멸망 가운데 있으며 그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똑같은 교리가 여러분과 나와 또한 판단력과 지식을 갖고 있고 원인과 결과를 추리할 수 있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으며 선한 것과 악한 것을 판단할 수 있으며 빛을 볼 수 있고 그것을 암흑과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아들과 딸에게 적용됩니다.

복음은 우리의 몽학선생님

유일하시며 참되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과 그가 세상에 보낸 아들을 아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지식은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것, 신앙, 죄의 회개, 죄사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 신성한 권능에 의한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를 통해서 옵니다. 이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롬 1:16 참조)진리에 순종함과 하나님이 그의 집에 세우신 질서에 복종하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집은 질서의 집이며 혼란의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성 132:8 참조)하나님께서서는 사람들에게 의식을 베풀고 가르치고 지시하고 자세히 설명하고 훈계하고 타이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의 교회에 사도와 예언자와 복음 전도자와 지도자와 교사를 세우셨습니다. 이 조직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가운데서 지도하고 지시하고 권고할 신성한 권능을 지닌 사람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창조된 이래 이전의 어떤 경륜의 시대보다 오늘날의 경륜의 시대에 가장 분명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집에서의 의식을 포함하여 기타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의식들은 그 위치와 시간에 있어서 필수적이며 우리 중의 누구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런 것을 무시할 만큼 충분히 크거나 선하거나 우리의 내부에 충분한 독립성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될 만큼 크거나 위대하거나 많이 알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기 그 분이 만드신 땅에 거하며 그 분이 만드신 공기를 마시며 그 분이

만드신 태양을 봅니다. 우리는 그분이 주신 음식을 먹고 그 분이 주신 옷을 입습니다. 그 분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입고 먹고 살고 움직이게 하는 모든 요소를 주셨으며 우리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회복된 신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한 순간이라도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과 또한 그들이 육신의 인간에게 가져다주신 그들의 말씀과 권고와 신성한 권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요셉 스미스가 행한 성역의 신성함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를 놓고 세상에 충만한 구원의 복음을 회복하고 인간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교리와 복음 의식을 회복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요셉 스미스에게 우리의 시대에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권능을 부여하셨음을 인정합니다. 그는 또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에게 의식을 행하도록 권능을 부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녀들에게 의식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열쇠를 지닌 신성한 신권을 회복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 거룩한 신권 없이는 어떤 사람도 침수로서의 침례에 의해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신성한 권능에 의해야 하며 그것이 없으면 우리 사업은 주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도록 권능을 부여하지 않고 부름을 주어 임명하지 않은 인간의 자녀들이 행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시고 성임하시고

임명하시어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집행할 권능을 주실 때 그들이 행한 것은 반드시 창조주와 그 권능을 주신 분에 의해서 인정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권을 받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면 그는 그것을 인정해 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십이사도는 눈과 귀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나는 여러분에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모두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 또한 내 뒤에도 말할 훌륭한 연사가 많이 계십니다. 사도로 또한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파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은 그들의 부름에 대한 영을 풍성하게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의 십이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사명을 귀와 눈으로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단순하게 그들이 말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나는 단지 그것을 믿기 때문에 받아들였습니다. 계시를 읽으십시오. 주님은 그들이 알아야 하며 스스로 지식을 얻어야 하며 그것을 자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처럼 함께 해야 한다고 지시하고 계시며 그들은 진리를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간증하고 그가 십자가에 못박혔으며 죽은자로부터 일어나셔서 이제 세상의 구세주로서 전능한 권세를 갖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저들의 사명이며 의무입니다. 또한 그것이 교리이고 진리이며 세상에 전파하고 또한 세상에 전파되는지 살피는 것이 저들의 의무입니다. 그들이 직접 갈 수 없을 때에는 그들의 지시에 따라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요셉이 하

나님의 예언자이며 하나님의 왕국의 기초를 놓도록 권능과 자격을 받았다는 진리를 선포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바로 내가 말한 그대로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왕이며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왕국의 왕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왕국의 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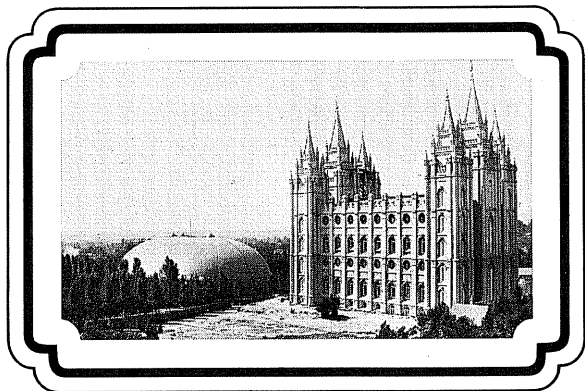
말일성도에게 필요한 자격

이제 우리에게서 모두 인내, 관용, 용서, 겸손, 자비, 거짓없는 사랑, 진리에 대한 헌신, 죄와 악과 거역과 복음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한 불순종을 증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말일성도에게, 말일성도가 되려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훌륭하게 서려는 사람 하나님의 후사 및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격입니다. 교회에서 훌륭한 위치에 있는 회원으로서 술에 취하고 방탕하고 불경하거나 또는 그의 형제나 이웃을 속이거나 덕과 명예와 의의 원리를 깨뜨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훌륭한 위치에 있는 회원들은 이런 범행을 결코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이런 악을 회피하고 그것보다 높은 수준에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세상에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남자와 여자 또는 책임질 연령에 도달할 만큼 성장한 모든 어린이까지도 세상에 모범이 되어야 하며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에 대한 간증을 전할 자격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는 생활과 하는 말과 생활에 있어서의 모든 행위가 경솔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교훈이 되도록 생활하여서 그들에게 선과 순결과 고결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인간 가족에 대한 사랑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 여러분과 모든 신앙의 가족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는 자가 승리한다는 것을 인식하여 끝까지 참되고 충실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





“일하는 자”

한국 지역 대표
한 인상 장로

연차 대회는 가장 영적인 대회였으며 가장 많은 실무를 처리할 대회였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에서는 두 분의 스테이크 부장님과 축복사 한 분, 감독 한 분,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 한 분, 그리고 지역 대표의 자격으로 제가 참석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상 처음으로 연차 대회에 한국의 지도자가 연단에 자리를 잡고 있을 수 있었고 겸손한 마음으로 합당하게 대한민국의 성도를 대표할 수 있도록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예언자 김볼 대관장님을 위시하여 모든 총관리 직원께서는 신권 선교 사업, 계보 및 신전 사업, 개인 및 가족 역사 기록, 비축 프로그램, 자가 경작 등을 강조하셨으며 특히 브르스 알 맥 콩키 장로님께서서는 여러 시대를 통해서 각각 선지자들이 어떠한 경고를 어떠한 방법으로 전해 왔으며 그 경고에 따라 준비할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의 경우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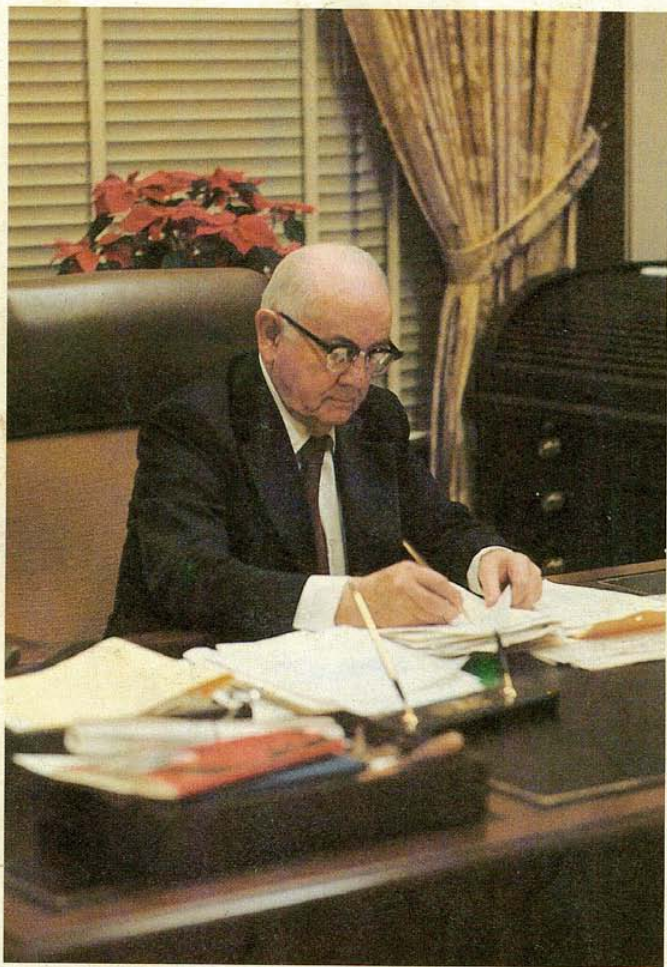
대관장님의 메시지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아세아의 선교 사업에 대한 강조였습니다. 아세아 대륙에 있어서 처음으로 시온의 스테이크를 갖게 된 대한민국이 그 대업의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시대를 살고 있으며 나라의 형편은 점점 좋아져서 세계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더욱 단단히 영적인 무장을 하고 의의 갑옷으로 몸을 감싸며 우리들의 가정이 이 지상의 작은 천국이 되도록 하는 온갖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미 목표는 주어진 것입니다. 교회의 청소년들은 모두 복음 선교사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했고 모든 성도들은 모두 선교사로서의 생활을 해야했으며 도덕적인 순결과 높은 수준의 성도로서의 생활 표준에 쫓아 생활해야했습니다.

이미 서울 스테이크는 서울 동 스테이크를 탄생시켰고 짐작컨대는 오래지 않아 서울 서 스테이크가 또 다른 스테이크를 탄



제84회 생신을 맞이한(3월 28일)
스펜서·더블류 김볼 대관장